

오늘날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최근 독일에서 발행된
페미니즘 텍스트들

이 글 모음집은 율리아 코르비크 작가가 주한독일문화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목차

서문 Einleitung 5

율리아 코르비크 7

비소설 Sachtexte 15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 Margarete Stokowski 『아래쪽이 자유로운』 Untenrum frei, 2016, Rowohlt 17

치아니-소피아 회더 Ciani-Sophia Hoeder 『분노와 악』 Wut und Böse, 2021, hansabla 27

마라이케 카이저 Mareice Kaiser 『현대 엄마의 고충』 Das Unwohlsein der modernen Mutter, 2021, Rowohlt Polaris 37

세이다 쿠에르트 Seyda Kurt 『급진적인 애정. 사랑은 왜 정치적인가』 Radikale Zärtlichkeit. Warum Liebe politisch ist, 2021, HarperCollins 47

소설 Literatur 59

안토니아 바움 Antonia Baum 『앉으세요!』 Setzen Sie sich!, 2018년 리나 무주어(Lina Muzur)가 편집한 단편소설집 『여자가 말했다(Sagte sie)』에 수록됨, Hanser, Berlin 61

요한나 아도르얀 Johanna Adorjan 『안녕』 Ciao, 2021, Kiepenheuer & Witsch 69

요바나 라이징거 Jovana Reisinger 『앞서간 여성들』 Spitzenreiterinnen, 2021, Verbrecher Verlag 79

샤론 도두아 오투 Sharon Dodua Otoo 『아다의 공간』 Adas Raum, 2021, Fischer Verlag 89

저자 소개 Autorinnen 103

서문

Einleitung

2013년 초, 여성들의 외침이 독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외침은 처음에는 트위터를 흔들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밖의 대중과 사회도 흔들었다. 독일의 시사잡지 '슈테른(Stern)'에서 당시 얼마 남지 않았던 독일 연방총선에 자민당의 대표후보로 출마한 라이너 브뤼델레(Rainer Brüderle)에 대한 인물평을 게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기사를 쓴 라우라 힘멜라이히(Laura Himmelreich) 기자는 브뤼델레 후보가 자신에게 독일의 여성 전통의상인 '디른들도 어울리는 여성(ein Dirndl auch ausfüllen)'라고 말하는 등 그가 성폭력을 행사한 방법에 대해 썼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나온 다른 기사에서는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의 아네트 마이리츠(Annett Meiritz) 기자가 독일 해적당 내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주제로 다루기도 했다. 그 후 트위터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성차별 경험을 나누었고, 트위터 사용자인 안네 비초렉(Anne Wizorek)은 이 트윗들을 '#외침(#Aufschrei)'이라는 해쉬태그로 한 곳에 모으자는 제안을 했다. 그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언론과 각종 토크쇼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성차별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주제는 아니었고, 그 전에도 독일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외침'에 대한 논의는 오랜만에 공개적이면서도 아주 격렬하고, 매우 폭넓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성차별이라는 주제가 성폭력, 성추행, 성별간 임금격차, 성 역할 고정관념 등 독일에서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덜 자유로우며 자기 결정권도 더 적은 것과 같이 전체 차이를 만드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 불평등 전반을 다루기에 적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렇다. '#외침'에 대한 논의는 이내 다른 '더 중요한' 주제와 현안에 밀려 추진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독일 페미니즘이 갑자기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며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와 토크쇼에서 젊은 여성들이 발언을 한다. 자신감이 넘치며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이 여성들은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21세기 독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시한다. 이들은 비판하고, 요구하고, 고발한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는 대형 언론에서 가끔가다 다뤄지고 마는 주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로 발전했다. 이제 페미니즘이 주류가 된 것이다.

'#외침' 이후 몇 년간 일어난 사건들은 계속해서 페미니즘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날 독일 쾰른에서 주로 북아프리카와 아랍권 출신의

남성 집단에게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특히 성범죄 형법 강화와 이민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도 왜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가해자가 이민자이거나 무슬림인 경우에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페미니즘 동맹인 '#예외없이(#ausnahmslos)'가 구성되어 '성범죄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언제, 어디서나, #예외없이'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그리고 '#미투(#metoo)'가 나왔다. 이는 2017년 10월 중순 미국의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을 둘러싼 스캔들에서 전개된 운동으로, '#미투'라는 표어는 미국의 활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이 일이 있기 훨씬 더 전에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미투 운동 이후 독일에서도 성폭력, 성차별주의, 권력 남용에 대한 논의가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평등에 대한 비판적 조명이 이루어졌고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적어도 오늘날 독일에서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방식만큼은 그렇게 오래 전과 비교하지 않아도 확실히 달라졌다. 미투 운동 덕분에, 또 최근 페미니즘을 겨냥한 제품 광고가 이루어지고 스타들과 신예들이 자신이 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힘입어 이제는 어디서든 페미니즘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에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목표를 거부하는 이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여전히 평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난 16년간 독일의 총리는 여성이었음에도 정치적 권력은 사실상 남성에게 있다. 지난 2021년 9월 연방총선 이전에 독일 연방하원 내 여성 의원 비율은 31.3%¹에 불과했다.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99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연방하원 내 여성 의원 비율은 이보다 약간 증가한 약 34.7%일 것으로 전망된다.²

그리고 가사노동이 되었던 아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이 되었든, 무급 돌봄 노동은 당연히 여전히 주로 여성의 몫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0%는 더 많이 수행한다.³ 그리고 이런 돌봄 노동을 하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근로시간을 더 줄이고⁴ 아이가 생겼을 때도 일을 더 오래 쉰다.⁵ 코로나19는 지난 몇 년간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분담 변화가 매우 적었고, 특히 가족 내에서 이러한

¹ 독일연방하원, 2019년 1월

² 연방하원 내 여성 의원 비율, 출처: bundestagswahl-2021.de

³ 디에트마르 호블러(Dietmar Hobler) 등, '무급 노동은 누가 수행하는가? 가사, 육아, 돌봄을 수행하는 성별 비교(Wer leistet unbezahlte Arbeit? Hausarbeit, Kindererziehung und Pflege im Geschlechtervergleich)', WSI 보고서 제 35호, 2017년 4월 참조.

⁴ WSI(2019), '1991에서 2018년 사이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 비율(Teilzeitquoten der abhängig Beschäftigten 1991-2018)', 출처: wsi.de. 참조

⁵ DIW(2019), '부모수당과 부모수당 플러스,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균등한 역할 분담은 아직 갈 길이 멀다(Elterngeld und Elterngeld Plus: Gleichmäßige Aufteilung zwischen Müttern und Vätern nach wie vor in weiter Ferne)', 출처: diw.de. 참조

역할 분담이 여전히 매우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여성들의 고민이었던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은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주요 설문조사⁶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며, 아이들의 '홈스쿨링(Homeschooling)'과 식사 준비도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신경쓴다.

그 외에도 분류되지 않은 몇 가지 예시들이 있다. 여성이 받는 임금은 여전히 남성보다 훨씬 적고, 성별간 임금 격차는 21%에 달한다.⁷ 2018년 기준 독일 DAX 상장기업 임원 중에는 토마스나 미하엘과 같은 남성 이름이 여성 이름보다 많았다.⁸ 독일에서 임신 중단은 합법이 아니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광고 속에서 신체를 드러내고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요리, 청소, 가사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다. 또한 이성애적 규범에서 벗어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외모가 다르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엄격한 이분법적 젠더 구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겪는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차고도 넘친다.

'#미투'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등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논쟁을 겪으면서 독일 페미니즘 운동도 변화했다. 독일의 페미니즘 운동은 더 다변화되고, 다양하고, 다채로워졌다. 예전에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백인 여성의 이익과 투쟁이 전면에 제시되었다. 영어에는 이를 일컫는 '백인 페미니즘(white feminism)'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주로 백인 중산층이자 이성애자이며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여성들로 구성된 특정 여성 집단의 경험에 기반한 페미니즘을 일컫는다. 그러니 독일을 비롯한 현재 페미니즘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는 '교차성(Intersektionalität)'이다. 이는 '교차점(Schnittpunkt)'이나 '교집합(Schnittmenge)'을 비롯해 '교차로(Kreuzung)'를 의미하기도 하는 영어 '교차(intersection)'에서 기인한 용어다. 따라서 교차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성별이라는 요소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젠더, 인종, 사회문화적 기원, 나이 등의 사회적인 범주가 어떻게 서로 교차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차별, 불평등, 차이의 다양한 형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페미니즘 운동이 다변화되고 접근방식의 교차성도 점점 증대되는 변화는 최근 페미니즘을 주제로 발표된 출판물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에 대한 출판물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출판사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한 것이다. 여기에는 독자와 대중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성평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⁶ 바바라 폰 뷔르첸(Barbara von Würzen), 2020, '코로나, 전통적인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큰 부담을 준다(Corona: Traditionelle Aufgabenverteilung im Haushalt belastet Frauen stark)', 출처: bertelsmann-stiftung.de. 참조

⁷ '임금과 임금 차이(Verdienste und Verdienstunterschiede)', 독일 연방 통계청, 2019

⁸ 올브라이트 재단(AllBright Stiftung), '단일 문화의 힘. 소수의 상장 기업만이 고위층의 다양성을 달성한다(Die Macht der Monokultur. Erst wenigen Börsenunternehmen gelingt Vielfalt in der Führung)', 2018 참조

추진하고 다변화하며 논의에 새로운 측면을 더하려는 의지가 작용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이제는 페미니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관점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요소와 범주가 관련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에 모은 글들은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을 주제로 독일에서 발표된 출판물을 한눈에 보여주며, #미투, 성폭력, 파트너의 폭력, 성추행, 성차별주의, 섹슈얼리티, 사랑, 여성의 신체, 미의 기준, 모성, 자의적 비출산, 돌봄 노동, 성 역할, 성 정체성, 인종차별, 차별, 남성성, 분노, 개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덟 명의 여성 작가들이 오늘날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 세계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건조하게, 때로는 산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Margarete Stokowski)는 오늘날 여성이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미디어에서 기인하는 자신(여성)의 신체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강박을 비판하고 분석한다. 스토크프스키는 좁은 의미의 자유란 넓은 의미의 자유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그는 완벽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여성에게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 것인지, 여성이 작은 몸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체가 정해진 표준에 부합해야만 자신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을 건조한 유머와 함께 풀어낸다.

치아니-소피아 회더(Ciani-Sophia Hoeder)는 여성의 분노에 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 여성들이 왜 자신의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지를 주제로 글을 쓴다. 그는 인종차별주의, 계급주의, 성차별주의라는 배경 하에서 도대체 누가 화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여성의 분노에 내재된 가변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회더의 글에는 여성 분노의 역사를 철저히 분석한 것과 여성이 자신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왜 화를 내는 것이 특히 백인 남성의 특권인지 설명한다.

마라이케 카이저(Mareice Kaiser, 1981)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 워킹맘의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 쓴다. 왜냐하면 여성이 하는 일에는 직장에서 하는 유급 노동 외에도 무급이며 대부분 여성이 맡게 되는 돌봄 노동과 가사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엄마들은 완전히 지쳐가고 가족도, 직업도, 자기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카이저는 '케어 노동(Care-Arbeit)'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내용과 감정으로 채우고,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자신에 글에서 돌봄 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시하는데, 즉 자녀, 가정, 직장, 일상생활을 비롯해 모든 것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셰이다 쿠어트(Şeyda Kurt, 1992)는 낭만적인 사랑의 형태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념이 가부장적 성역할을 고착하고 심지어 인종차별과

성폭력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관리(self-care)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표준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이곤 하는 '자기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쿼트에 따르면 이런 전통적인 관념 대신에 급진적인 애정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쿼트는 사회적 평등의 결핍이 우리가 맺는 가장 친밀한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글은 현실에 눈을 뜨게 해 주면서도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랑과 친밀감이란 숨 쉴 공기조차 없는 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토니아 바움(Antonia Baum)은 가상의 법정에서 성폭행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피해 여성은 각자 자기만의 편견, 의견, 의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사실은 피해자인 여성의 잘못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다. 바움은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계속 살아갈 것을 학습해 왔는지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그의 글은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요한나 아도르얀(Johanna Adorján)의 작품 속 주인공인 한스 베네데크(Hans Benedek)는 '늙은 백인 남성' 그 자체다. 문화부 기자인 한스는 자신과 자신의 글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지 오래다. 그리고 특히 한스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젊은 페미니스트 중 한 사람에 대해 묘사할 때 이 사실이 특히 두드러진다. 아도르얀은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역설적이면서도 쉽게 다루고 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보인다. 그는 어떤 특정한 태도가 완전히 옳거나 틀렸다고 묘사하지 않고, 서로를 좀 더 차분히 대하자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아도르얀에 따르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맹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요바나 라이징거(Jovana Reisinger)는 작품 속 모든 여성 인물들에게 페트라(Petra), 줄리(Jolie), 브리기테(Britte) 등 독일 여성지의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역할 강박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세계에서 활동하며, 이런 가치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또는 여성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한다. 라이징거는 여성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삶, 신체,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또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현실을 여성 독자들에게 거울을 비추듯 보여준다. 그는 사회 구조와 성 역할이 성적 지향성이나 파트너의 폭력 등의 사안에서 어떻게 선택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지를 보여준다

샤론 도두아 오투(Sharon Dodua Otoo)는 아프리카와 유럽, 나중에 가나가 될 나라, 영국, 독일 등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대륙에서 벌어지는 각기 다른 여성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다. 이들은 모두 아다라는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 명의 같은 여성인 건 아닐까? 한 여성이 많은 여성이자 많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오투는 여성으로서의 삶,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고통과 행복, 무력함과 저항, 정체성 찾기, 식민주의, 기억 문화, 망각,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지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여성들의 자매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투는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디서 왔는지를 떠나 여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글들이 매우 다양하고, 작가의 관찰방식과 접근방식도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 독일이 여전히 평등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페미니즘이 과연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페미니즘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페미니즘이 이제 너무 멀리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여성들에게 모든 자유가 있으며 이제는 사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획일주의 (Gleichmacherei)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페미니즘이 주류가 되었지만, 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역풍도 거세졌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페미니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대 페미니즘은 결코 획일주의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자유, 전통적이며 이성애 규범적인 성 역할의 붕괴를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 이 글들은 평등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아직도,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비소설

Sachtexte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 **Margarete Stokowski** :

『아래쪽이 자유로운 **Untenrum frei**
』

2016, Rowohlt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는 오늘날 여성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유, 평등, 자기결정권을 누리는지, 그리고 성평등의 맥락 속에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독일인인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 역할과 성 고정관념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여성으로서 신체를 최적화하도록 강요받는 일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특히 미디어를 통한 신체의 섹슈얼라이제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헬무트 콜의 총리시절이 끝날 때, 나의 유년시절이 끝난다. 한순간에 끝난다.

나는 12살이고 취미는 독서, 그림 그리기 그리고 욕실에서 화장을 했다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다시 화장을 지우는 것이다. 극장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진짜 어른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머리에는 보라색 브릿지를 넣고, 다이히만^{Deichmann} (역주-다양한 브랜드의 신발을 모아 판매하는 신발업체) 매장에서 산 버팔로^{Buffalo} 통굽 신발을 카피한 듯한 디자인의 신발을 신고 다닌다. 특별히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에는 푸른색 마스크라와 하얀색 아이섀도우로 화장을 하는데, 그 조합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서다.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겁이 난다. 이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두 개의 작은 봉우리가 몇 년 후에는 엄청 커질 거라 상상하니 그렇다. 가슴말이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가슴이 다 자라면 가슴 아래 살이 겹치는 틈에 때가 끼는 상상도 해본다. 자기 가슴 아랫부분을 살피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할 것 같다. 아마도 여자로서 살다 보면 애 낳고 남편 챙기고 일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게 분명하다. 그러니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때가 쌓일 것이고, 수영장이나 가야 그 때가 씻겨질 것이다. 염소를 탄 수영장 물에 말이다. 수영장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때가 쌓이게 될 것이다. 우웁!

나는 샤워를 하다 말고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기분이이다. 보통 손톱에 낀 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브리시를 꺼내 들고 브리시에 샤워젤을 넉넉하게 짰 다음,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가슴 아랫부분을 꼼꼼하게 닦는다. 구석구석 열심히 문지른다. 왜냐하면 적어도 50년 정도는 그 부위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저녁에 피부발진이 일어난다.

17년 후 샤를로테 로쉬^{Charlotte Roche}가 쓴 『모든 것을 위한 소녀^{Mädchen für alles}』를 읽는다. 매우 신경증적인 이 책의 주인공은 자신이 샤워하는 법을 설명한다. "나는 약간 무거운 가슴을 들어올린다. 가슴 아랫부분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 밑 주름에 염증이 생길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내가 예전에 이 정도로 신경증적이었는지 또는 여전히 그런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지금은 가슴 아래 살이 접히는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한다. 적어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체 가꾸기" 라는 주제에 관한 고민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눈썹을 그리며 이렇게 말한다. "너는 눈썹이 진하고 예쁘게 나서 이럴 필요 없어. 너 태어날 때 벌써 확인했지." 그러면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예스! 훌륭한 눈썹.' 그러면서 동시에 배운다. 여자에게는 신체로부터 비롯되는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를 가졌기 때문에 양치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자는 집을 나서기 전 눈썹을 그려야 한다. 사실 엄마는 절대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3분이면 단장이 끝난다. 바로 그래서 더 강하게 와 닿았던 것 같다.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런 엄마조차 화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면서 "드러그스토어 제품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시기가 시작된다. 어느 날부터 몸에 난 털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온갖 종류의 제모크림과 왁싱제품을 사용해보고, 겨드랑이 털이 한 가닥 자라나오자 몇 시간 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말 한 가닥이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난 한 가닥. 시간이 지나면서 세 가닥으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양쪽 겨드랑이에 난 털이 모두 합쳐 다섯 가닥이 된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모조리 다 제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음모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난 털도 내친김에 모두 제거한다. (나중에는 팔뚝에 난 털까지 제거 대상이 된다. 언젠가 아빠가 내 팔을 쓰다듬으면서 나를 "나의 꼬마 매머드씨"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팔뚝에 난 털도 다 제거하자. 학교에서 한 친구가 팔뚝에 털이 하나도 없는 게 징그럽다고 말하기까지 나는 팔뚝에 난 털도 제거한다. 하지만 결국 나는 친구의 말에 동의한다.)

적어도 제모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부터 어린 시절에는 놀이처럼 재미삼아 했던 예쁘게 치장하고 꾸미기가 일종의 임무가 되어버린다. 내 몸은 걸어 다니는 투-두 리스트^{to-do list}가 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하고 나면 사실 대단히 수고로운 일도 아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양치질하는 것보다 빠르게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나를 꾸미는 일은 더 이상 이것저것 해보고, "~처럼"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 불가피한 일, 적어도 꼭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일이 된다. 나는 그 누구도 내 몸에 난 털을 발견하지 못하게, 특히 겨드랑이 털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 느낌이다. 겨드랑이 털은 세상에 내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1mm 이상 자라지 못하게 관리한다. 캠핑 중이든 한겨울이든 말이다.

겨드랑이 털이 길게 자란 것은 20대 초반 급성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처음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모가 중요하지 않다. 겨드랑이 털이 자랐다는 사실을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발견한다. 샤워를 하다가 팔 안쪽 겨드랑이에 난 털을 발견하고 생각한다. '음, 흥미롭군.'

이론적으로는 겨드랑이 털이 난 지 10년쯤 되었는데, 내 겨드랑이 털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네. 아, 이렇게 생겼군.' 그리고는 곧바로 제모를 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예뻐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 보인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제모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는데, 남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기준과 강제를 상당히 내면화 한 사람이라 기준과 요구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대답 말이다.

모든 이유가 다 맞다. 그래서 참 복잡하다.

어떤 "강제"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외계인이 나를 드러그스토어로 끌고 가서 나에게 "개당 2.5유로하는 이 면도날을 사?"라고 했다는 건 아니다. 아무도 나에게 강요를 하지는 않는다.

희한한 모순이다. 내 몸이 여성의 상징들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 내 최대의 관심사는 그 상징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슴은 제거할 수가 없다. 당연하다. 가슴과 관련해서는 가슴 아래 살이 접히는 부분에 때가 쌓이는 것만 걱정이다. 하지만 자꾸 자라나오는 털은 제거할 수 있다. 희한하게도 왁스테이프나 면도기를 이용해 제모를 하고 예전처럼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어른이 된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나는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주문에 걸린 듯 어른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습을 따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주로 미키마우스 공책과 군것질 거리를 사는데 썼던 용돈을 이제는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쓴다. 그 제품들을 쓰지 않으면 진짜 여자가 되지 못할 것처럼 말이다. 헤어스프레이, 아이섀도우, 립글로스, 딸기 향 바디로션.

화장하는 법을 열심히 연습하고, 드래그 퀸 한 명 정도 완벽한 무대 화장을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화장품 파우치도 하나 갖고 있다. 그런데 막상 욕실에서 나올 때 내 모습은 이전과 똑같다. 나오기 전 화장을 싹 지우기 때문이다. 내가 화장한 모습을 누군가가 볼까 창피하다. 같은 반 여자애들 중 화장을 하고 다니는 애들은 난잡한 애들, 과장되고 표면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런 애가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파우스트 1권』을 몇 장씩 외우고, 학기가 시작된 첫 주에 그 해 공부할 물리책을 다 읽는 그런 아이다. 나는 그런 학생이고, 그런 학생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고 싶다. 몇 시간씩 거울 앞에 서서 블러셔를 바르는 그런 애처럼 보이기 싫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말이다.¹

이렇게 나는 12살의 나이에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요구가

¹ 나는 여전히 블러셔를 제대로 바르지 못한다.

얼마나 모순적인지 인지하게 된다. 여자는 예뻐야 하지만, 너무 예쁘면 안 된다. 외모에 신경을 쓰되, 외모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티가 나서는 안 된다. 성적 매력을 지녀야 하지만, "쉬운 상대"라는 인상을 주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²

(49-54쪽)

[...]

여자의 몸이 장식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다. '슈테른^{Stern}'이나 '포커스^{Focus}' 같은 매거진들이 기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반쯤 벌거벗은 또는 완전히 벗은 여성의 사진을 게재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질투에 관한 기사이든 에소테릭이나 내시경에 관한 기사이든 상관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 나는 상급과정(역주- 고등학교 과정 정도에 해당하는 학년) 철학수업을 맡은 적이 있는데, 수업 중 인간의 대상화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유명 주간지의 레이아웃 담당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주간지의 표지를 장식할 사진을 골라보라고 했다. 주제는 "소금". 학생들은 "넘어진 소금통 사진을 표지에 사용하겠어요."라고 답했다. 실제로 '포커스^{Focus}'지는 입술을 빨갱게 칠한, 얼굴에 소금 알갱이가 뿌려진 여자의 얼굴을 표지로 썼다. "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제안했다. 이 주제의 경우에도 '포커스^{Focus}'지의 표지에는 나체 상태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는 여자의 모습과 여자 뒤에 세포를 확대한 사진이 실렸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Sex sells". 그러나 여기에서 "섹스"가 "나체의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을 의미한다면 광고의 절반 정도에는 반쯤 벗은 남자들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자가 훨씬 더 섹시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더 많은 여자들이 동성애자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Sex sells"는 우리가 익숙해진 원리가 되어버렸지만, 그게 사실인 건 아니다. 어떤 제품을 섹스 즉, 벌거벗은 여자를 내세워 광고한다고 해서 결코 더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이와 관련해 53개의 다양한 실험을 분석하였다. 이때 선정성 그리고/또는 폭력성을 내세우는 광고, 또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화 사이에 방영되는 광고의 효과가 조사되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이 연구에는 거의 8천 5백 명의 실험대상자가 참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흥미를 보인 건 사실이었지만, 문제는 제품으로부터 관심이 빼앗길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다.³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폭력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선정성 또는 폭력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판매량과 관련한 결과는 분명했다. 폭력성이나 선정성은 광고의 판매효과를 높이지 않았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법무부 장관은 2016년 초 독일에서 성차별적 광고와 인간이 단순히

² 운동만 예외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이 되도 된다.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그렇게 되었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성적 매력보다는 건강 및 단련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³ 이 연구에서 선정성보다 폭력성이 더 성적이 나빴다. 폭력성을 내세운 광고 속 브랜드를 실험참가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고, 그런 브랜드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구매가능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적 어필을 이용해 광고하는 브랜드들은 무엇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았다. 연구: Robert B. Lull & Brad J. Bushman: „Do Sex and Violence Sell?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Effects of Sexual and Violent Media and Ad Content on Memory, Attitudes and Buying Intentions“, in : Psychological Bulletin, Vol 141 (2015), No. 5, p. 1022-1048.

성적 대상으로 표현된 포스터를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했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알몸을 금지시키겠다는 건가? 아니면 모델들에게 부르카라도 두르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에로틱한 광고, "섹스-광고"라도 불리는 종류의 광고를 금지시킨다는 소리인가? 여자가 나체로 등장하는 광고가 곧 "섹스를 포함한" 광고인가? 여자의 나체나 신체 일부를 섹스와 에로티즘 또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는 여성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여성상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글을 쓸 때 늘 "여자들"이라고, 마치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닌 듯 표현한다. 물론 나는 여자다. 그리고 여자로 인지되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메르켈 총리야 말로."

고위직에 있는 여자들이야 말로 남녀의 특징을 모두 지녔음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여성적 측면의 강조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받아오던 존경심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여성성"의 어떤 속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2016년 여름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가 영국의 총리가 되자 '벨트 Welt '지는 표지에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레오파트 무늬 펌프스를 신은 그녀의 발을 실었다. "권력의 구두". 레오파트 무늬가 실제로 여성에게 권력을 안겨준다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

언젠가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내버려두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자기 외모가 아닌, 자신이 맡은 임무에 더 충실하게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외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직접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힘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모습에 가까워지려 애를 쓰지만 끝이 없다.

드러그스토어에서 '자신을 예쁘게 가꾸기'에 빠져 있는 여학생들을 관찰해보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용돈을 헤어 제품과 화장품에 쓰는 데 지출하는데, 이리저리 뛰다니며 비교를 하고 계산을 해보다가 흥분한다. "용돈이 거의 바닥 났는데 결국 남아 있는 건 또 가장 비싼 네일파일이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때 광고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보는 몸이 얼마나 완벽한 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비슷한 지는 중요하지 않다. 죄다 날씬하고 키가 크고, 젊고, 매끈하고, 피부는 대게 희고, 장애가 없고, 운동으로 잘 다져진 몸매를 가졌다. 아예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접하는 이상적인 몸은 여자나 남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 '몸'에 의해 평가를 받는 정도가 더 강하다. 독일 정치인 중에 고도비만으로 보이는 남자 정치인은 몇이나 되고, 그런 여자 정치인은 몇이나 되는가? 남자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그것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여자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의 경우 '외모'도 평가의 한 요소인 것은 확실하다.

힐랄 제즈긴^{Hilal Sezgin}은 일간지인 '타게스차이퉁^{taz}'에 쓴 기사에서 여자들은 예컨대 토론에 참여할 때 "늘 온몸과 개성을 다해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다. "남자는 수트 속에 숨어버리고, 중립적이고 마치 몸이 없고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존재가 된다. 여자에 대한 평가에는 생김새, 옷차림, 제스처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그녀의 말하는 태도는 어떤가, 그녀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가, 얼마나 자주 미소 짓는가?"⁴

안타깝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이 금방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남자들도 점점 더 외모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느끼는 압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매일 같이 신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우리는 늘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는 잘못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자들이 독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종종 이루어지는데, 정작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를 쓰고자 하는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

나오미 울프^{Naomi Wolf}는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The Beauty Myth}』에서 여성이 더 많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가능성을 가질수록 더 엄격한 미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이 아이-부엌-교회-여성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아름다움의 신화가 넘겨 받았다."⁵

그런 의미에서 당시 나는 12살의 나이에 본능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약성테이프와 화장품을 이용해 내 몸을 가꾸는 일 말이다.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여자로써 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엉망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자면 명예로운 시도다. 문제는 사춘기 때는 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자라 나오고 새어 나온다. [...]

체육시간 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며 나의 어색한 몸을 다른 친구들의 어색한 몸과 비교하곤 한다. 적나라한 노출의 장소다. 단순히 옷을 벗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누구의 가슴이 큰가? 누가 어디를 어떻게 제모 했는가? 누가 어떤 속옷을 입었는가?

섹시해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브래지어 바로 위에 스웨터를 입는다. 물론 푸시업^{push up} 브라다. 다른 종류의 브래지어는 상상할 수도 없다. 브래지어라면, 당연히 푸시, 푸시, 푸시... 최대한 가슴을 받쳐주고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 브래지어만 입고 바로 스웨터를 입는 걸 누가 처음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포르노에서 보고 따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추워서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는다. 나는 말라서 안 그래도 항상 추위를 탄다.

(73-80쪽)

⁴ Hilal Sezgin: „Die emanzipierte Redaktion“, in: taz, 2014.10.29.

⁵ Naomi Wolf: Der Mythos Schönheit, Reinbek 1993, p. 13.

[...]

16살이 된 나는 일기를 열심히 쓴다. "오늘은 많이 안 먹음. 사과 1개, 쫄면바크(역주-독일식 러스크) 1개." 라고 쓰는 날도 있지만, 몸무게를 기록하고 살이 많이 빠져 기분이 좋다고 기록하는 날도 있다. 나는 체질량지수^{BMI}가 15.4, 그러니까 상당한 저체중 상태를 달성하였는데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40kg이 상한선인데,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쓴 날도 있다. 가족 행사가 있었던 날 일기는 이랬다. "오 이런! 난 정말 똥똥하다. 어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임신부 같아 보인다. 몸무게를 재니 39.2kg이다. 그래, 충분히 뺄 수 있어."

살을 빼는 건 참 역설적인 느낌이다. 계속해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 내면에서는 더 자신감이 생기지만, 몸은 힘이 없다. [...] 나는 한편으로 내가 저체중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체중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몸의 상태라, 저체중 범위 내에서도 더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에 오늘날 소셜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날씬함을 자랑하는 챌린지가 존재했다면, 나는 분명 모든 챌린지에 참여했을 것이다. 일어서서 양 무릎 안쪽이 닿도록 다리를 붙이고 서도 양 허벅지 사이에 틈이 생길 정도로 말라야 하는 "사이 갭^{thigh gap} 챌린지"부터, 한쪽 팔을 등 뒤로 돌려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배꼽을 만지는 "벨리 버튼^{belly button} 챌린지", 쇠골^{collarbone} 위에 가능한 많은 동전을 쌓아 올리는 "쇠골^{collarbone} 챌린지", 가슴 아래에 펜을 끼워 넣고 떨어뜨리지 않는 "가슴 밑 펜 끼우기^{unter boob pen} 챌린지", 종이 한 장을 세로로 들고 서 있을 때 허리가 종이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라야 하는 "A4 용지^{A4 paper} 챌린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다양한 챌린지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괴한 트렌드로 보일 수 있지만,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들은 적어도 한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자신이 날씬하고 충분히 예쁘다는 사실을, 적어도 챌린지 기준에 부합하는 셀카 한 장을 남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측정이 가능한 성과이며, 측정가능한 것은 안심을 준다. 물론 금방 새로운 챌린지가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신체구조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챌린지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사이의 틈인 "사이 갭^{thigh gap}"은 특정 허벅지 모양을 가진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식단조절을 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인터넷은 그렇게 보이는 사진을 남기기 위한 정확한 포즈, 보정속옷 또는 셀프태닝 제품 등에 대한 소개로 가득하다.

챌린지의 논리는 완벽하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매우 명확한 목표가 제시된다. 그냥 날씬하다고 하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데, 챌린지가 제시하는 목표는 훨씬 구체적이다. 게다가 챌린지에 참여하면 '이길' 수도 있다. 상은 "좋아요"다.⁶ 물론 비욘세, 김 카다시안 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처럼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플랫폼상에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아주 조금은 같은 물에서 노는 셈이다.

⁶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고 해당 챌린지를 비교거나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 #a4waist 로 검색을 하면, 실제로 A4용지로 날씬한 허리를 가리는 사진을 올린 여자들뿐 아니라, A3용지나 피자박스나 대학졸업장을 들고 찍은 사진들도 검색이 된다. 그러나 그런 사진들은 단지 비꼼이나 저항의 표현으로 간주될 뿐이다. 해당 챌린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새로운 미의 기준이 제시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려고 달려드는 수동적인 멍청이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신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 곳에나 세워 놓고 감상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몸'이며,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치 손이 무언가를 잡거나 무언가에 의해 잡힐 수 있듯이, 심지어 동시에 잡고 잡힐 수 있듯이 말이다.

'아름다운' 몸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역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바람 속 얼마나 많은 자유가 존재하며, 변화의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다. 사실 가끔씩 스스로를 섹시한 대상이나, 어떤 종류의 것이 되었든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위험하다. [...]

정신분석가인 수지 오바크^{Susie Orbach}는 『몸에 갇힌 사람들^{Bodies}』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미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오바크는 우리가 보정된 몸이 등장하는 사진을 일주일에 2천 내지 5천 번 정도 본다고 한다. 쉽게 말해 완벽해 보이는 몸을 계속해서 접한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꽤 능숙하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한다. 우리는 자기 몸을 놀라울 정도로 잔인하게 다루면서도 스스로가 무언가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화장품, 식이요법, 성형수술 등을 우리가 특정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것들이 심지어 우리의 몸을 케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 그리고 자신을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기 신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주변에 비슷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굶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이상적인 기준에 맞서는 것보다 쉽다. 게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름답다. 11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마른 것과 인기 있는 것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⁷ 특히 여자 아이들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커 가면서 병적인 행동들을 보이기도 한다. 11세 학생들은 남녀가 섭식장애를 보이는 비중이 비슷한 반면 (다섯 명 중 하나는 섭식 장애가 있다), 17세 여학생 중에는 30%가 섭식장애를 갖고 있으며 비중이 13% 정도인 남학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섭식장애 증상을 보인다.⁸

이러한 현상은 허영심이나 전형적인 사춘기 아이들의 불안뿐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지를 묻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다음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젊고 날씬한 여자의 몸이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간주되며 매력, 건강, 단련을 상징하는 이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몸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⁷ Bravo-Studie 2016, Bauer Media, 2016.01.25

⁸ 물론 성별이 섭식장애 증상의 빈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또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섭식장애 빈도가 훨씬 높다. 또한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섭식장애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 H. Hölling, R. Schlack: Essstörungen im Kindes- und Jugendalter. Erste Ergebnisse aus dem Kinder- und Jugendgesundheitssurvey (KiGGS), Robert-Koch-Institut, Berlin 2007.

비소설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 『아래쪽이 자유로운』

페기 펠란^{Peggy Phelan}은 그녀의 저서 『무표적: 퍼포먼스의 정치^{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에서 외모가 곧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젊은 백인 여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⁹ 그런 여성은 자기 몸을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므로 다른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지정되는 사회 속 위치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서게 되기 때문이다.

(100-105쪽)

⁹ Peggy Phelan: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London/New York 1993, p. 10.

치아니-소피아 회더 Ciani-Sophia Hoeder

『분노와 악』 Wut und Böse

2021, hanserblau in der Carl Hanser Verlag GmbH & Co. KG, München

여성의 분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분노한 여성은 신경질적이고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화난 흑인 여성' ^{angry black woman}이라는 인종차별적 꼬리표가 붙기도 한다. 아프리카계 독일인인 치아니-소피아 회더는 도대체 누가 분노해도 되는 것인지를 인종차별주의, 계급주의, 성차별주의라는 배경 하에서 묻고, 여성의 분노에 내재된 가변적인 잠재력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한 여성이 화가 났다. 그의 뺨은 진홍색으로 은은하게 빛이 났고, 목소리는 힘이 있고 다급하며 냉혹했다. 나의 어머니는 여동생과 나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서 있었다. 우리를 혼자서 키웠기에 항상 돈이 부족했던 어머니는 매번 영수증을 전부 확인하고 이런저런 곳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 날 어머니는 영수증에서 실수를 하나 발견했다. 너무 많은 돈이 계산된 것이었다. 장을 본 물건을 들고, 나와 동생은 어머니를 잡아 끄는 와중에 어머니는 직원에게 영수증에 대해 물었다. 계산원은 어머니에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우리는 20분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 안에서 분노의 구름이 일어났다. 또 다음 손님이 웅웅거리는 컨베이어 벨트에 식료품을 올려놓았을 때, 어머니는 그 손님 앞을 가로막고 계산원에게 말했다. "당신 상사와 이야기하고 싶군요!" 어머니는 이 말을 딱딱하게 내뱉었다. 계산원이 전화를 걸었고, 이내 그의 상사가 그곳으로 왔다. 너무한 일이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아이들도 있었다. 어머니의 분노가 그 가게 전체에 퍼졌고, 상대방의 얼굴은 굳어져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머니가 비합리적이고 짜증나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듯 거리를 두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지만, 화를 내자 어머니는 시끄럽고 신경질적인 여성이 되었다.

이것은 내게 여성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많은 순간들 중 하나였다. 분노란 시스젠더 남성의 감정이다. 우리의 문화적 기대는 전 세계 소녀와 여성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분노란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분노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진다.

분노는 불편하다. 나는 분노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내 안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일 때, 나는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그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분노하게 된 원인이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는 대신 나의 온전한 세계를 유지하고, 고립된 행복이라는 작은 섬에 파묻혀 있으려 애를 썼다. 억눌린 분노를 내 안에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문제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분노를 억누르면 그것은 나 개인의 작은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나는 까칠하고, 상대하기 어려우며, 시끄럽고, 감정적이며, 프로답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억눌렀다. 이렇게 정말로 분노하게 되는 데에는 온갖 이유가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쉽게 지친다. 여성은 적어도 남성과 섹스를 할 때 남성보다 오르가즘을 덜 느낀다. 여성은 남성 동료보다 소득이 적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 중 3/4은 여성이 임금이 낮은 분야나 직군에서 일을 하고, 여성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여성 환자는 같은 증상을 보이는 남성 환자보다 통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망률도 누구에게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성 의사에게 치료받는 경우에는 여성이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독일에서 남성과 데이트를 하는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신체적이며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다.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현재 파트너 혹은 이전에 만났던 파트너로부터 적어도 한 번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지를 비롯해 여성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된다.

여성의 분노가 설 자리가 없는 사회는 어떤 상태일까? 여성의 분노에 대한 깊은 문화적 두려움이 있어 그러는 걸까?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은 위험하지 않고, 자신의 부당한 현실을 전혀 바꿀 수 없다.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분노를 느낀다. 우리 사회가 웃음을 짓고 온화한 여성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분노를 눌러 삼키는 것뿐이다.

분노란 시스젠더 남성, 그 중에서도 주로 이성애자의 특권이다. 한 사람의 성별이나 섹슈얼리티뿐 아니라 외형적 특징이나 신체 크기, 비율, 피부색 등 외적인 특성 등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분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모든 것이 분노의 범위를 결정한다. 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몫이 주어지는 것이다.

특권이 있는 외형을 한 사람의 분노는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여진다. 흑인 여성인 나의 분노는 '백인' 여성의 분노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다.¹⁰

¹⁰ 편집자 율리아 코르비크의 주석, 치아니-소피아 회터는 '흑인(Schwarz)'을 대문자로 써서 이것이 생물학적 '인종'도 아니며 그렇다고 정말 색상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같은 이유로 회터는 '백인(weiß)'도 소문자이자 이탤릭체로 작성했다(미투 산알도 '아이덴티티'에서 동일한 표기를 사용했다).

분노는 섹시하지 않다. 분노는 신경 써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맞지 않는 감정이다. 분노는 요가와 명상, 그리고 거의 신경증에 가까운 자기 관리 열풍을 통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다. 내면화된 분노는 재앙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 감정을 억누르면 섭식장애, 자해, 두통, 자존감 부족, 불안감 증가, 번아웃, 우울증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분노는 존재한다. 분노는 분명히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뿐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에도 위험한 일이다. 여기서 씩씩한 진실은, 앞서 말한 모든 문제들은 친절하고 한결 같은 미소를 통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분노를 억누르면 변화 없는 정체된 상태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분노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표출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크게 소리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분노와 여성성이 우리 사회의 체계 속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이 어린 소녀일 때부터 분노를 억누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대신에, 소녀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도 소녀들의 분노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우리 모두 느끼지만,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를 다루는 법은 서로 다르게 배운다.

내 어머니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폭발했던 것은 어머니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로 분노한 것에는 꽤 많은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고, 이 가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 어머니는 매일,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 당시 나는 이런 것이 불편했다.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분노란 원래 불편한 것이니까. 하지만 분노를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낀다. [...]

분노는 여성적이지 않은 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심지어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 분노는 우리가 오늘날 투표를 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도움이 되었다. 분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불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분노는 우리의 촉매이자, 엔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9-13쪽)

[...]

대부분의 여성은 분노를 달힌 공간에서 발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냥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예시로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독일 사민당 전 대표의 사례가 있다. 날레스가 당대표가 된 지 일 년 후, 언론은 2017년 독일 연방총선 이후 날레스 대표의 공공연한 방식이나 '한 방 먹이다'^{in die Fresse}와 보통 어린 아이들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미로 쓰는 '뱃취'^{Bätschi} 등 비꼬는 말을 한 것을 계속 언급했다. 같은 사민당의 남성 정치인인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나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잡지 커버 사진을 찍은 페어 슈타인브뤼크^{Peer Steinbrück}의 행동은 그저 거들먹대고 충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남자애들이 그렇지'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날레스의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이 이 남성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날레스가 시작부터 시끄럽고, 지배하려 들며, 너무 화가 나 있다고 반응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분노라는 이 감정으로부터 나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분노하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화가 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슬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안에 타오르던 불이 분노의 눈물로 꺼진 것이었다. 흐느끼고, 몸을 떨고, 연극의 한 장면처럼 손수건을 빼 드는 것은 불을 뿜는 것처럼 분노로 발을 구르는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행동이다. 조용히 눈물만 흘린다. 그러면 누군가 서둘러 도움을 주게 된다. 이것은 나를 피해자로, 구조받아야 할 존재로 만든다. 슬픔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반면에 분노는 파괴한다. 분노는 도시를 불태워버린다. 분노는 나에게 힘을 준다. 슬퍼하는 것은 이타적이고, 분노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눈물은 동정을 사지만 소리치는 것은 골치가 아프다. 우리 여성들은 사람들을 돌보고 친절을 베풀며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다. 남성은 마음껏 분노를 표출하며 또 그럴 여지를 부여받지만, 여성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화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몸을 사려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자주 따르는데, 이 여성상이 우리의 내면에 깃들어 모든 것을 막고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 어느 것도 내던져버릴 수 없다. 사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정확히 이런 이미지를 가진 여성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여성이 바람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호감이 가는 여성이다. 불평등을 지적하고, 스스로를 위해 나서거나 그럴 여지를 가지는 여성은 상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와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2020년 11월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마주한 이후 영어권에서는 조롱하듯 웃는다는 의미를 가진 '능글맞게 웃다'^{Smirking}라는 단어가,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이미 그들의 삶에서 사용해야 할 수 밖에 없었던, 억눌린 미소를 짓게 되는 현상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눈이 작아지고, 미소는 굳어진다. 주먹을 꼭 쥐고, 손톱을 살갗에 꼭 누르고, 혀를 깨물고 어떻게든 이 기분을 스스로 삭이려 한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자. 왜냐하면 '여기는 남성들의 세계'^{This is a man's world}니까.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주로 '백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시스젠더 녀석들이 결정하는 세계다.

감정 연구원인 아그네타 피셔^{Agneta H. Fischer}는 자신의 저서 『젠더와 감정^{Gender and Emotion}』

에서 여성이 낮은 사람보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제력을 잃는 것이 사회적인 금기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적인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피서는 여성의 분노가 그 근원과 유사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말도 없이 잠수를 탄 사람에게 화가 났지만 상대방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시키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잠수를 탄 사람은 그 이전의 분노까지 모든 분노를 감당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분노라는 이 감정을 남성만큼 강렬하고 자주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화를 낼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분노를 느낀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이 분노하는 상황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성은 배신, 무시, 거부, 무분별한 비난, 무관심에 더 분노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파트너가 변덕스럽거나 자기중심적일 때 더 분노한다고 답했다. 결국 남성은 여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 화를 내고, 여성은 그 외 다른 모든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분노를 좋아하지 않고, 공격성을 보이는 대신 우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라기 보다는 수백 년 동안 학습된 결과다. 심리학자 테레사 베르나르데스(Teresa Bernardez)에 따르면 여성의 분노가 사실상 금지된 것은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종속적이라는 것, 둘째는 여성이 계속 서비스직을 맡아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 셋째는 여성이 하위 계층에 종속될 뿐 아니라 봉사과 돌봄 역할을 맡는 구조인 '이상적인 여성(weibliche Ideal)'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8-41쪽)

이 메시지는 어린 소녀들과 이 소녀들의 욕구, 생각, 관심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소녀들이 이런 감정을 억눌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좋은 여성이 될 수 있다. 분노하지 않는, 좋은 여성이.

그럼에도 여성이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여성이 분노하는 이유가 아니라 분노한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 분노할 때도 "그런 식이면 너와 대화할 수 없어. 너는 너무 감정적이지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미카엘라 더들리 박사^{Dr. Michaela Dudley}는 "그렇게 되면 겉포장이 중요하지,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가부장적이며, 자화자찬이자 여성혐오적이며, 인종차별적인 권력 과시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사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중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 속의 불평등을

바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프랑스의 작가 폴린 아르망주^{Pauline Harmange}는 자신의 저서 『나는 남자가 싫다^{Ich hasse Männer}』에서 논쟁에서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결국 분노하게 된 원인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는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의 어조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수용하지 않거나 계속 무시하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다.

흑인과 유색인종은 이런 것을 지겹도록 겪었을 것이다. '중립성'과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인종차별이나 차별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항상 듣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톤 폴리싱^{Tone Policing}'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 불만이 완전히 정당함에도 이를 제기하는 방식을 이유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상대방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제시해야 그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큰 소리를 내고 분노하며 비판하는 사람은 건설적이지 않으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원래 주장하던 바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카엘라 더들리 박사에 따르면 톤 폴리싱이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 이 논의는 형식 문제로 연기됐어. 당신이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오늘은 이 논의를 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이다. 톤 폴리싱은 이미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억압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사결정권을 가진 위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잡은 하나의 전통이다.

독일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이었다. 왜 여성이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19세기 심리학자, 의사, 교회 대표자들이 풍부한 근거를 마련했었다. 여성의 뇌는 너무 작고 신체는 너무도 연약하니, 여성의 본성에는 모성이나 가사일이 잘 맞는다는 것이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장이기도 한데, 단순히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프로이센의 내무장관이었던 폰 함머슈타인^{von Hammerstein} 남작의 말을 인용하자면, "저는 여성이 정치 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조금 흥분해 공적인 의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이는 우리 프로이센 국민과 공화국에게 슬픈 광경일 것입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권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성의 권한이 많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성 투표권은 여성의 동등한 의회 정치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성은 너무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과 맞서 싸우고 있다. 정치를 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업을 이끌기에, 권력정치를 하기에 너무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는 것이다. 여성은 커튼을 잘 고르는 일이나 맞는다는 생각도 물론 그 중 하나다.

감정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서로 다른 양극이 되어 고착화된다. 시민 계급의 발전 이후에 이것이 또 다시 확고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두 극단은 절대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신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별로 상관없는 사안을 가만히 내버려두기란 항상 쉬운 법이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또는 현대적 제국주의의 과도한 확장 등의 문제를 사소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톤 폴리싱은 특정 사안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어적인 반사작용이다. '지금 네 어조가 틀렸어'라고 말해 논쟁을 멈추려는 것이다. [...]

분노는 이론적으로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분노를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낙인찍기 위해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 작용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분노를 무시하고 비난하기가 수월해진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여성들은 이런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일찍이 이 세상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행동을 세상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54-57쪽)

분노는 이기적인 것이며 여성은 이타적이어야 한다. 만일 모든 여성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모든 여성이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를 위해 작게, 또 크게 나서면 어떻게 될까? 불균형한 관계가 균형을 맞추고, 아직도 여성의 임금의 적은 것과 같은 잘못된 구조가 공정해지고 우리 사회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분노하는 여성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마녀, 해방론자, 성격 나쁜 여성 등으로 불렸으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상징적인 제재를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범적인 여성성의 틀을 벗어나기만 해도 사회로부터 공간적으로도 배제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마녀가 마을 외곽에서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다.

역사학자이자 젠더학자인 파비엔 암링어 박사^{Dr. Fabienne Amlinger}는 자신의 논문 '분노와 페미니즘'^{Wut und Feminismus}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런 여성들이 정신이 나갔고, 비합리적이며,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좌절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썼다. 여성의 분노는 편해지고, 개인의 특징이자, 병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특성으로 여겨졌고, 이는 결국 사회로 인한 감정인 분노 뒤에 숨은 것, 즉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인 경고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피하지 않는 강한 여성이 호감이 가지 않는 여성으로 여겨졌다.

특히 자신을 많이 희생하는 사람은 주변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분노를 억눌러 표출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분노를 너무 쉽게 '놓아 버린다'며 더 강하게 비판한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바샤 미카^{Bascha Mika}는 자신의 저서 『여성의 나약함, 역할의 함정과 인질의 사고방식^{Die Feigheit der Frauen: Rollenfallen und Geiselmentalität}』에서 '심리학을 배우든 사회화를 하든,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원한다면 갈등을 건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은 나약하다'라고 썼다. 죄송하지만, 말은 쉽다.

나약함이나 치부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다. 특히 수치심은 괴로운 감정이다. 수치심을 느끼면 뒤로 물러서고, 몸을 웅크리고 방어하며, 땅 속으로 숨고 싶은 기분이 된다. 수치심을 느끼면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수치심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다양한데, 잠깐 스치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성적으로 성격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치심의 강도 역시 가벼운 수치심부터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의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분노를 느낄 때는 밤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머리가 울리고 위장 쪽에서는 좋지 않은 느낌이 점점 올라오며 그냥 머리 위로 이불을 덮어쓰고 싶은 기분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말했었지?"라는 중요한 물음이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과 함께 밀려온다.

바샤 미카는 분노와 공격성은 에너지이며, 여성들은 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다. 외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를 숨겨야 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노는 너무나 작아져, 타오르던 불길이 작은 등불이 되고 결국 완전히 사그라든다.

여성의 분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의 분노는 외교적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다. 틀렸다는 수치심 때문일까, 배제되는 것처럼 사회적인 영향을 겪을까 두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주장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내 분노가 정당한가'다. 우리의 분노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분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분노란 주관적인 것이다. 분노가 언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분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분노가 알람 신호로서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신호가 결국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다.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을 위해 나서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에른만 툰베리^{Greta Ernman Thunberg}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How dare you?}'라는 물음을 던졌다.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ulstreiks für das Klima}'은 세계적 운동이 되었다. 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일관적인 기후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툰베리의 연설은 그의 분노를 보여주었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툰베리는 "저는 이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바다 건너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툰베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행동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 그의 뺨은 울긋불긋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얼굴은 잔뜩 찡그려졌고 목소리는 거의 쉬어 찌진 소리가 났다. 툰베리는 "어떻게 감히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유년 시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계속해서 회피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툰베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들에게 그레타는 사랑스럽고 조용하며 행실이 바른 소녀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연설에서 툰베리가 분노를 보였기 때문이다. 툰베리는 말과 몸짓 언어로 자신의 분노를 전달했다. 툰베리의 연설을 녹화한 영상 아래 댓글란에는 '왜 그렇게 공격적인거야?'라는 질문이 달렸다. 다른 댓글에서는 '저것보다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인 로데리히 키제베테^{Roderich Kiesewetter}는 트위터에 '그런 식으로 이성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신용을 잃은 것이다. 이건 객관적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질'이다. 쓸쓸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행복한 소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레타 툰베리도 좋게 항의하려고 해 봤지만, 이제는 자신이 분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당신들이라는 것을 유엔에 분명히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툰베리가 분노한 이유보다는 항의를 제기한 방식에 대한 논의에 시간을 쏟았다.

심리학자인 우르줄라 헤스 박사^{Dr. Ursula Hess}는 '여성들에게는 이미 분노를 표현할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며, 나이 든 여성의 경우 분노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많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많은 학술 논문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야만 하는 빈도와 분노의 강도가 나이를 들면서 점차 줄어든다는 내용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고 해도 여성이 젊을수록 분노가 더 적게 허락된다는 것이다.

여성이 일이 너무 바빠 분노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이 여성이 평정심을 잃었다는 그 사실만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며, 원인보다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이 바쁘다고 분노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분노하는 여성은 과하다거나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만약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분노하는 여성이 잘못된 망상을 펼치는 거라고 한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103-107쪽)

마라이케 카이저 Mareice Kaiser

『현대 엄마의 고충』 Das Unwohlsein der modernen Mutter

2021, Rowohlt Polaris

미디어와 정치계에서는 가정과 직업의 “양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마라이케 카이저는 그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지 설명한다. 돈도 벌고 (무급 노동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담당해야 하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은 지쳐 나가떨어질 지경이 되고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낌이다.

빵을 집어 들고 자른다. 냉장고에서 버터를 꺼낸 다음 빵에 버터를 바른다. "치즈 먹을래?" 나는 묻는다. 빵에 치즈도 없다. 도시락 통을 씻는다. 서랍에서 야채 껍질을 까는 칼을 꺼내 오이 껍질을 벗긴다. 물론 안 먹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오이도 넣는다. 어쩌면 우연히 도시락 통을 보게 될 누군가에게 오이를 싸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지도 모른다. 오이를 얇게 썰어 두 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의 위칸에 넣는다. 빵은 아래 칸에 넣는다. 크네케브로트(역주-바삭한 과자 같은 식감의 빵)에 버터를 바른다. "소금 뿌려 줄까?" 나는 묻는다. 크네케브로트에 소금을 뿌린다. 빵을 접시에 담고 접시를 식탁에 올려 놓는다. 유리잔에 물을 따르고 유리잔을 식탁에 올려 놓는다.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는다. 세제를 채워 넣는다. 버튼을 누른다. 전동칫솔을 다시 장에 넣는다. 세면대에 묻은 치약을 닦는다. 수건을 하나 집어 들어 세면대의 물기를 모두 닦는다. 먼지를 불어 날린다.

수학 공책을 가방에 넣는다. 시간표를 확인한다. "금방 갈게." 나는 대답한다. 엉덩이에 묻은 똥을 닦는다. 물내림 버튼을 누른다. 변기에 묻은 똥을 닦는다. 다시 물내림 버튼을 누른다. 신발 버클을 채운다. 다른 쪽 신발의 버클도 채운다. 걸려 있던 외투를 집어 든다. 팔을 외투에 집어넣는 것을 도와준다.

선생님에게 메일을 쓴다. 아빠에게 메일을 쓴다. 내일 아이를 학교에서 대신 찾아줄 친구에게 메일을 쓴다. 호르트(역주-방과후 교실)에 전화를 한 다. "내일은 제 친구가 아이를

데려다줄 거예요. 네, 말씀하신 종이는 가방에 넣어 놓겠습니다."

소아과에 전화한다. 예약을 잡는다. 소아과 예약 내역을 디지털 캘린더에 기입한다. 세탁기 알림음이 울린다. 세탁이 끝난 빨랫감을 꺼낸다. 빨래를 던다. 원피스를 다린다.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넣는다. 식탁을 닦는다. 걸려 있던 외투를 집어 든다. 팔을 외투에 집어넣는다. 다른 쪽 팔도 집어넣는다. 문을 연다.

송금을 한다. 커피를 끓인다. 미용실 예약을 미룬다. 치약을 잊지 말아야지 생각한다. 이메일을 쓴다. 여러 통의 메일을 쓴다. 쓰레기봉투 사오는 것을 깜박해서, 쓰레기통에 임시방편으로 끼운 낡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는다. 시장 볼 때 쓰레기봉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청소기를 돌린다. 욕실 바닥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복도와 부엌 바닥도 청소기로 청소하고 소파 아래 바닥의 먼지도 빨아들인다. 청소기를 소파 아래로 최대한 밀어 넣는다. 끝까지 닿지 않는다. 7년째 그랬다. 우리 집 먼지로 산다면 어떨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증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파프리카를 자른다. 토마토를 자른다. 모짜렐라 치즈를 자른다. 국수를 삶는다. 국수를 버터에 비빈다.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식단이 아이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본다. 어린이, 탄수화물, 지방을 구글에 검색한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샐러드를 식탁 위에 놓는다. 구역질이 날 것 같다는 눈빛이 느껴진다. 버터에 비빈 국수를 식탁에 올려놓고 샐러드를 먹는다. 그리고 남은 국수를, 접시에 남은 것과 식탁에 떨어진 것을 먹는다. 접시, 유리잔, 수저를 식기세척기에 넣는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다.

침대 시트를 씌운다. 물을 끓인다. 보온물주머니에 뜨거운 물을 채운다. 욕조에 물을 채운다. 글리비를 탄다.¹¹ 세탁기를 가득 채운다. 부엌을 정리한다. 식탁을 닦는다. 바닥을 닦는다. 빨래를 던다. 수도관 수리기사에게 전화한다. 부모님께 전화한다. 부모님의 금혼식에 드릴 선물 때문에 형제들에게 연락한다. 자장가를 부른다. 책을 읽어준다. 옷을 꺼내 놓는다. 꽃에 물을 준다. 이웃집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 창문을 닫지 않는다.

케어^{care}노동 또는 돌봄 노동은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정의에 따르면 돌보고 보살피는 일, 케어와 셀프케어를 말한다. 임산부, 신생아와 산모를 곁에서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일, 성인 직장인의 노동력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생산시키는 일, 질병이나 장애 발생 시 가정에서 및 전문적으로 수발하고 지원하는 일, 친구, 이웃, 친인척 간 자구 지원 그리고 고령자 수발과 임종준비 등에까지 이른다.

이 개념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온종일 제공되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보살핌과

¹¹ 욕조를 엉망으로 만드는 끔찍한 제품이다. 부모라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아이이거나 수도관 수리기사라면 글리비를 적극 권한다.

지원활동과 더불어, 이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지식과 조직과 책임을 포괄한다. 요리, 청소, 수리 등도 케어노동이다.¹² 케어노동은 대개 여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무급 가사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케어노동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케어노동은 필수적이다. 케어 없이 삶도 없다.

그것은 남자들이 돈을 벌러 나갈 수 있도록 여자들이 수행하는 일인 경우도 많다.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집에서 음식을 차리고 식탁을 깨끗하게 치워야 가능하다. 식탁 치우기는 페미니즘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들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가인 자신타 난디^{Jacinta Nandi}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주부^{Die schlechteste Hausfrau der Welt}』라는 훌륭한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집이 지저분하면 여자는 창피해하지만, 남자는 그러지 않는다."¹³ 그래서 청소가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교수인 남편을 둔 여자는 청소부를 고용하지만 청소부가 오기 전 청소를 한다. (참고로 나는 교수가 아니지만, 청소가 나의 임무라 생각하지 않는다.)

케어노동이 여전히 여자, 특히 엄마의 임무라는 인식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우리는 우리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 1살 밖에 안 된 아이를 낳은 사람 손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지만, 남편이 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해해요. 저는 일주일에 25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남편은 35시간 맡기자고 합니다."¹⁴ '그 약간의 노동^{Das bisschen Arbeit}'이라는 트위터 계정의 글이다.

이분법적인 남녀의 성역할을 바꾸어 던진 질문이며, 백만 번 즈음 던져졌을 질문이다. 해당 트윗글에는 거의 300개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은 커리어우먼이라 주장하는 여자들이 워킹대드^{working dad}를 꿈꾸는 남편에 대해 늘어놓은 불만으로 가득하다. 거기에는 남편이 애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외모를 가꾸었으면 한다고 써 있다. 부성애는 천성이고, 남편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은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원비로 여차피 다 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트윗글에 달린 답변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웃었다. 씩씩하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이 평등한 부모관계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때문이다. 모두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와는 더욱 거리가 있다. [...]

(31-35쪽)

이미 1970년대에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매우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논쟁이었다. 국제적 모토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이었고 이 캠페인은 독일에서, 특히 서독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독에서는 이미 1952년에 일명 가사노동의 날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성들 그리고 극소수의 남자들이 매달 하루의 유급 가사노동의 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¹² Uta Meier-Gräwe: „Wirtschaft neu ausrichten. Wege in eine care-zentrierte Ökonomie“, bpb.de, 2020.10.30.

¹³ Jacinta Nandi: „Die schlechteste Hausfrau der Welt“, Hamburg 2020, p. 50.

¹⁴ twitter.com/dasbisschenarb1/status/1223192055859634176?lang=de

비소설
마라이케 카이저: 『현대 엄마의 고충』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던 동독에서는 유급 가사노동의 날 보장을 통해 주부들의 수고를 높이 인정함으로써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 캠페인이 정착하지 못했다.

베를린의 여성신문 '쿠라지^{Courage}'를 통해 피케 비어만^{Pieke Biermann}과 기젤라 보크^{Gisela Bock}은 가사노동을 "사회의 핵심산업"이라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모든 여성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 국제적 페미니즘 전략의 강령^{Programm}이다."

이때 우선적 목표는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 보장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여자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 즉,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경기상황에 따라 가정 밖 저임금 노동과 가정 내 무임금 노동 사이에서 언제든 여기저기로 미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이나 심지어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계속해서 의존해야 하며, 여자에게 힘든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적은 보수를 놓고 우리끼리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⁵

그러니까 그것은 돈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무급으로 수행되어 온 일을 드러내 보이고 인정하는 것의 문제였다. [...]

이 운동은 해산되었다. "그 요구사항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적어도 독일에서는 유토피아적인 일로 드러났다."¹⁶ 라면서 말이다. 이 논쟁을 재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케어 레볼루션 네트워크^{Netzwerk Care Revolution}'라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결의안에는 이렇게 써 있다. "돌봄노동을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제공할 경우, 그에 적합한 노동시간모델과 사회적 규정에 근거해 물질적 그리고 시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실현 방식에 대해 문의하자, 단체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퀄 케어 매니페스트^{Equal Care Manifest}'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알무트 슈네링^{Almut Schnerring}과 사샤 페를란^{Sascha Verlan}이 주도한 이 이니셔티브의 18개 요구사항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보상 (예컨대 부모수당 수준의 돌봄수당) 지급과 연계하여, 재정적으로 보장된 가족근로시간^{Familienarbeitszeit}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 가족 중 환자 및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케어노동을 위한 유연한 시간예산^{Zeitbudget} 제도를 도입하라."¹⁷ 알무트 슈네링과 사샤 페를란은 '균등돌봄의 날^{Equal Care Day}'도 주창하였다. 이 날은 케어노동과 부양, 케어노동자와 돌봄제공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충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날이다. '균등돌봄의 날'은 윤년에는 2월 29일, 그리고 그 외에는 3월 1일로 정했다. "윤일(2월29일)은 케어노동처럼 쉽게 간과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슈네링과 페를란의

¹⁵ Pieke Biermann und Gisela Bock: „Lohn für Hausarbeit vom Staat für alle Frauen“, Berliner Frauenzeitung Courage 3/1977.
¹⁶ Barbara Duden: „Arbeit aus Liebe – Liebe als Arbeit. Ein Rückblick“, Olympe. Feministische Arbeitshefte zur Politik 30/2009.
¹⁷ Almut Schnerring und Sascha Verlan: „Equal Care Manifest“, equalcareday.de, o.D.

설명이다.¹⁸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또 다른 종류의 노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바로 감정적 노동이다. '감정노동' ^{Emotional Labour}은 사회학자인 앨리 호실드 ^{Arlie Hochschild}가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감정적인) 노동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이다. 친절해야만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승무원이 좋은 예다. 그리고 "엄마"의 직무 역시 딱 들어맞는 예다.

엄마는 위로하고, 의욕과 용기를 주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감정노동의 고전적 정의다." 작가인 비앙카 얀코브스카 ^{Bianca Jankovska}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르가슴을 예로 든다.¹⁹ 리즈대학교 ^{University of Leeds}의 게일 브루어 ^{Gayle Brewer}와 콜린 헨드리 ^{Colin Hendrie}가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애자 여성의 87%가 섹스 중 오르가슴에 도달한 것처럼 연기를 한다. '그'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모두가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막상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많은 경우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해 그렇게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의 경우 그랬다. 우리 엄마처럼, 이성애를 규범으로 간주하는 서독 사회에서 핵가족의 엄마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다른 방식의 삶은 곧 가난을 의미했다 [...].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케어노동, 가사노동, 감정노동이 모두 문제없이 제공되면, 엄마들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엄마가 수행해야 할 일들 중 어떤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그 부분은 아웃소싱된다. 바로 또 다른 여자들에게 말이다. 예컨대 특히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 여성들이 고용되어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그들은 주로 가사도우미로 청소를 하고 아주 적은 보수를 받아 간다. 그 시간에 엄마들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파트타임직이다.

"문제는 집안일이 아니라,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일을 언제 다 하라는 말인가?"라고 작가 야친타 난디 ^{Jacinta Nandi}²⁰가 묻는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핵심이다. 우리가 부모로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할 때, 핵심은 시간이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늘 반쪽짜리로? 애가 옆에 있어도 늘 머리 속으로는 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머리 속으로 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있다. 바로 시간정책 ^{Zeitpolitik}이다. 소개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그러한 의미의 정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입된 거의 모든 가족정책들은 가정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에 도입된 연방 부모수당 및 육아휴직 법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이나 2015년에 도입된 부모수당 플러스 ^{Elterngeld Plus} 그리고 육아휴직 유연화 정책 등을

¹⁸ Almut Schnerring und Sascha Verlan: „Equal Care Manifest“, equalcareday.de, o.D.

¹⁹ ibid.

²⁰ Jacinta Nandi: „Die schlechteste Hausfrau der Welt“, Hamburg 2020, p. 41.

들 수 있다. 부모수당을 수령한 아빠의 수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거의 두 배 늘어났다. 물론 엄마들은 주로 1년을 휴직하는 반면, 아빠들은 휴직 기간이 대개 두 달 정도라는 차이는 있다.

시간은 모든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다. 특히 엄마들에게 부족한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은 28세에서 34세 사이의 시기를 "인생의 러시아워"라고 설명한다.²¹ 사람이 살면서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기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자기 부모를 보살피야 하는 일까지 더해지기도 한다. 시간정책은 빈번하게 쓰이는 개념이지만, 정치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시간정책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나도 지나치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언제 끝나?" 동료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14시에 원고 하나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15시가 지났다. "거의 다 됐어." 나는 답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휴대폰에 어린이집 번호가 뜨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건 좋은 일인 경우가 드물다. "여보세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다. 손가락, 문, 끼다, 흐느끼며 우는 소리, 싫어, 선생님 말고 엄마, 흐느끼며 우는 소리.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왼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한다. "어린이집에 가봐야 해. 애가 손을 다쳤대." 노트북을 덮고 나간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앱으로 택시를 부른다.

"원고는 늦어도 오늘 밤에 보낼게." 택시 안에서 동료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멀미가 난다. 차 뒷좌석에만 앉으면 멀미가 난다. 세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간인데 거리에 차가 가득하다. 택시 운전사는 차가 많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나는 차가 많다고 불평할 여유조차 없다. 그저 질문할 뿐이다. 원고는 언제 완성하지? 병원에 가야 할까? 도대체 저 망할 신호는 언제 초록으로 바뀌는 거야? 빌어먹을, 이게 가능하기나 한 거야? 양립이란 단어부터 맘에 안 든다!

나는 두 개의 직업을 가졌고 둘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는 순간이 많다. 나는 엄마인 동시에 기자다. 도대체 어떻게 기사를 쓰는 동시에 아이와 놀아주라는 말인가?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이 문에 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오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 미칠 만큼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 만큼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되고 싶은 엄마의 역할까지 해낼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양립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니었을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점점 멀미가 심해지지만, "양립"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 "가정과 직업의 양립은 20세기 이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성인이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 하에) 한편으로는 직업과 커리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생활과 자녀 및 보살핌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일에 동시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²¹ Hans Bertram und Carolin Deufilhard: „Familien-Zeitpolitik: Zeit für Fürsorge“, bpb.de, 2014.11.06.

어려움이라... 느껴진다. 여기에서 한술 더 뜬다. "가정과 직업의 양립은 원래 엄마로서의 역할과 직업활동이 병행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었다면, 산업국가의 사회적 담론은 여성 해방운동의 전개와 함께 엄마와 아빠는 직업활동을 자녀 양육과 어떻게 시간적으로 양립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 한 연구결과 독일에서 여자는 일일 평균 4시간 29분 동안 무급 노동을 한다. 여기에는 집안일, 자녀나 보살핌이 필요한 식구들 돌보기, 명예직 및 봉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독일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커리어 상실, 직장에서의 차별을 감수하는 삶을 의미한다.

어떤 부당함은 어느 순간 당연한 것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때까지 계속된다. 직업세계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러한 종류의 부당함이라고 안네 쿤체^{Anne Kunze}가 썼다.²³ '워킹맘'이라는 단어는 돈을 버는 엄마들이 여전히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주-가족^{Familie}과 아버지^{Vater}의 합성어로 가정적인 아빠를 뜻하는) "Familienvater"라는 독일어 표현도 같은 맥락이다. 가족이 없는 아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역주-가족^{Familie}과 어머니^{Mutter}의 합성어로 잘 쓰이지 않는) "Familienmutter"라는 표현은 어떤가? 또 하나의 예가 있다. 커리어우먼. '커리어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여자와 엄마에 대한 차별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을 일컬어 "무티^{Mutti}(역주-독일어로 엄마^{Mutter}의 애칭)"라고 부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인) 메르켈이 가진 권력이 평가절하된다. "성인들이 다른 성인에 대해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은 상대를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고,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는 표현"이라고 작가인 틸 레터^{Till Raether}가 설명한다.²⁴ 다른 한편으로는 무티^{Mutti}라는 표현으로 앙겔라 메르켈이 평가절하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 속 '무티^{Mutti}'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진지하게 대할 필요 없는, 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이야말로 말로 정확하게 그 반대인데 말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과 직장생활,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는 남자를 뭐라고 부를까? "진정한 파워맨"? 아마도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 '커리어우먼'이나 '파워우먼' 또는 '워킹맘'이라는 말들이 사용되는 이상, 돈 버는 일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일로 간주되고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아이가 없는 남자를 기준으로 수립될 것이다.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공장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육아휴직 후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생기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하거나 더 낮은 직책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에서 조사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사분의 일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²² https://de.wikipedia.org/wiki/Vereinbarkeit_von_Familie_und_Beruf

²³ Anne Kunze: „Skandal ohne Ende“, zeit.de, 2019.03.22.

²⁴ Till Raether: „Die Mutti aller Schlachten“, Süddeutsche Zeitung Magazin 10/2017.

차별의 이유로 성별을 꼽는다. 성차별인 것이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이 존재한다. 일반평등대우법, 공정임금법, 연방육아휴직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을 관철시키는 것은 어려운 모양이다. 게다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은 흔히 아는 사실이다. [...]

양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비양립에 대해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 특히 엄마가 경험하는 것은 비양립이기 때문이다. 바로 직장, 아이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한다면)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상황이다. 예컨대 '감정노동'은 특히 여성들에게 다음을 확신시켜준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균형과 만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 결과 감정도, 직업도, 아이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매일 같이.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 어떤 역할이든 반쪽에 불과하고, 온전히 해내지 못한다는 기분.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항상 빨리 퇴근해 아이에게 달려가야 하는 엄마. 또 금방 돈 벌러가야 하는 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가득한 삶이다.

"그러니 여자들이여, 맞서자! 많은 남자들이 그대들을 지지해줄 것이다."라고 안네 쿤체 Anne Kunze²⁵는 말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다. 노동세계의 변화는 많은 남성들에게 권력과 안락함과 경제력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요. 제 권력과 돈을 양보하겠어요!"라고 말하는 남자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 맞서는 것이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차별을 받고 있는 쪽에서 뭔가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어서도 안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이 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도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36-45쪽)

[...]

양립, 말은 쉽게 들린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듯 들린다. 양립은 신화다. 일-생활-균형도 마찬가지다. 양립과 일-생활-균형 같은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암시한다. '실패할 경우 그 원인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미소 지으며 해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일-생활-균형이 대다수에게 실질적 균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잔 자한가르트 Susan Djahangard²⁶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계속 몸부림치며 피곤해하고 대개 불만족하면서 그것에 대한

²⁵ Anne Kunze: „Skandal ohne Ende“, zeit.de, 2019.03.22.

²⁶ Susan Djahangard: „Eine neue Vollzeit“, taz.de, 2020.10.06.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사실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데도 말이다. 양립이 실현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양립불가능한 상황이 일반적이다. 적어도 나를 비롯해 내가 아는 주변의 부모들의 경우 그렇다.

때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구하는 외침이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튀링겐에서는 2018년 여름 한 여성의원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주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엄마는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일만 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원이 산후조리 기간에 주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아기는 집에 두고 오든, 어디든 맡겨 놓고 오라는 것이다. 아이를 둔 엄마라도 당연히 일을 하라면서, 커리어 욕심은 내지 말라는 것이다.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우리는 양립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양립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일-생활-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 불균형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다른 단어들, 더 적합한 표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일-생활-균형이라는 말보다는 케어-일-여가-투쟁^{Care-Work-Leisure-Struggle}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수잔 자한가르트 역시 투쟁에 대하여, 바로 아이가 없는 여자로서 해야 하는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여자가 불균형에 맞선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엄마로서 그 투쟁은 양극화되고 극단으로 치달을 뿐이다.

"일하고, 욕실 청소하고, 장보고, (신선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 만들고, 빨래를 할 뿐 아니라, 머리도 해야 하고, 운동, 친구, 자원봉사 활동, 수면까지. 그렇다, 이것이 내 삶이고 아마 당신의 삶이기도 할 것이다. 당신도 이 투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없어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부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²⁷

엄마와 직장인이라는 두 역할이 오늘날과 같은 조건 하에서 양립이 가능하거나 한 것인가? 지금 택시 안,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나는 그 사실에 강한 회의감을 느낀다.

다음날 손가락이 퉁퉁 붓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러지지 않는 아이는 나에게 "엄마 사무실에 따라 가면 안 돼?"라고 물을 때도 그랬다.

그래도 된다고 하면 아마도 원고는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특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질문은 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²⁷ ibid.

비소설
마라이케 카이저 : 『현대 엄마의 고충』

"어린이집으로 일찍 데리러 갈게." 나는 거짓말을 한다. 동료에게 곧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원고는 내일이나 되야 완성될 것이다.

(58-60쪽)

셰이다 쿠르트 Seyda Kurt

『급진적인 애정. 사랑은 왜 정치적인가』 Radikale Zärtlichkeit. Warum Liebe politisch ist

2021, HarperCollins

셰이다 쿠르트에 따르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가부장적 성 역할을 고착시키며 심지어 인종차별과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는 자기관리(self-care)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며 자본주의적인 규범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이는 자기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쿠르트에 따르면 그 대신에 급진적인 애정이 필요하며, 이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셰이다 쿠르트에 따르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가부장적 성 역할을 고착시키며 심지어 인종차별과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는 자기관리^{self-care}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는 별로 관련이 없으며 자본주의적인 규범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이는 자기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쿠르트에 따르면 그 대신에 급진적인 애정이 필요하며, 이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전통적인 역할 분배를 견뎌낸다.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난 뒤에도 집안일과 돌봄 노동에 뛰어들고,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 침대에 쓰러지는 생활을 기꺼이 감수한다.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다툼질과 낭만적인 경험을 위한 상징적인 일들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파트너를 참고 견딘다. 우리는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고통받는다. 사랑은 신성하니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유해한 낭만이라 부른다.

2019년 초에 베를린시 경찰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그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Jetzt sucht er dich - wir helfen} 라는 제목으로 공개적인 호소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한 경찰이 어찌할 줄 모르며 시내를 돌아다니던 한 젊은 여성에게 길을 알려줬고, 그 후로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글에는 '어제 당신은 오후 네 시 삼십 분에 할레슈 토어 ^{Hallesches Tor} 지하철 역에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온라인 매거진 편집부에 근무하면서 이 일에 대한 논평을 썼는데, 베를린

경찰의 이 행동이 과도한 침해이며, 경찰관과 젊은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것이라고 썼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처럼 그 여성이 헤어지면서 지었다는 미소가 반드시 전국적이며 공개적으로 자신을 찾으라는 요구는 아니라는 말이었다. 예의상 당연히 취한 제스처를 항상 낭만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필요는 없다. 나는 그 기사에 '여성인 내가 경찰관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사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잠재적인 파트너나 외모, 웃음, 태도로 평가받는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내가 그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을까?'²⁸라고 썼다.

여기서 논점은 언급된 여성이 베를린 경찰의 행동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 여성이 그 글에 답을 하거나 이 두 사람이 다시 길에서 마주쳤다고 할 때, 이 젊은 경찰관과 여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베를린 경찰의 이 행동은 그 여성을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이 도움이 필요해 예의상 한 행동을 마치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윙크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매우 당연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예시다. [...]

주로 남성들이 보낸 분노, 모욕, 격노가 담긴 독자의 말이 나를 공격했다. 다른 독자들은 많은 질문을 던졌다. 내가 그 젊은 경찰관의 개인적인 행복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나 자신은 사랑에 빠진 적이 없는지를 묻는 독자도 눈에 띄게 많았다. 그리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독자도 두 명 이상은 있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실제로 유해한 낭만에 가장 끈질기게 달라붙는 신화다. 물론 내가 누군가를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게 사랑이란 동등한 눈높이에서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이런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그저 나를 잠시 스쳐갔을 뿐이니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내 권력의 위치를 이용해도 되는 걸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Eva Illouz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이러한 "사랑을 거의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것quasireligiöse Liebesauffassung²⁹은 더 높은 권력과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욕망과 성적인 것에는 모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우리는 침묵을 깨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규정하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²⁸ <https://ze.tt/polizei-sucht-auf-instagram-nach-einer-frau-in-die-sich-ein-kollege-verliebt-hat-und-das-ist-ein-problem>

²⁹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Warum Liebe weh tut), Suhrkamp, 2016년, 363쪽.

선을 긋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 앞으로 다가올 것, 욕망과 행동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고, 모순과 동의를 분명히 말로 표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침묵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1월 배우 카트린 드뇌브 Catherine Deneuve를 비롯한 프랑스 유명인사 약 100명이 프랑스의 일간지 '르 몽드' Le Monde에 공개 서한을 발송해 미투 운동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은 단지 남성들을 '도살장의 돼지' Cette fièvre à envoyer les ,porcs' à l'abattoir로 보내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열정이 '사회에 전체주의적 분위기 un climat de société totalitaire'를 형성한다면서 그 대신에 '누군가를 유혹할 자유 une liberté d'importuner'³⁰를 요구했다. 유혹의 자유가 성적 자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었다. 왜냐하면 끈질기거나 설부른 유혹은 이들에게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미투 운동에 대해 몇 가지 비판하고 싶은 점은 있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은 주로 애초에 대중에게 폭넓게 호소할 기회가 더 많은 '백인' 중산층 시스젠더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다루고 있다. 또 적어도 주류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심층적, 구조적, 정치적 상황을 향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리고 여성, 논바이너리, 인터젠더,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방식을 분석하는 대신 일상을 관찰하는 것에 너무 만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드뇌브를 비롯한 이들의 말은 수천 명이 '#미투'라는 이 해쉬태그를 통해 공유한 이야기를 별 일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언사다. 폭력에 대한 경험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는 합법적이지만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공포를 일으키는 것까지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표현하고 폭력에 맞서려면, 그 관계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독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1997년에서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부부강간이 실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전에는 법에서 이를 '혼외 성관계' außerehelicher Beischlaf³¹를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었다. 법이 이러하였으니 부부관계 강요와 부부강간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 형사소송의 대상도 아니었다.

오늘날 독일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 물리적이며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한다. 이는 2018년 독일연방범죄청에서 파트너 간 폭력을 범죄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³¹ 이에 따르면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현재 파트너 혹은 이전에 만났던 파트너로부터 적어도 한 번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하는데, 이는 논바이너리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다. 따라서 여성이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파트너에 의한 것이다.

³⁰ https://lemonde.fr/idees/article/2018/01/09/nous-defendons-une-liberte-d-importuner-indispensable-a-la-liberte-sexuelle_5239134_3232.html

³¹ 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Lagebilder/Partnerschaftsgewalt/partnerschaftsgewalt_node.html

약 3일마다 여성 한 명이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한다. 그리고 대중이 이런 사례를 접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지?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라며 매번 같은 질문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독일의 범죄학자 크리스티안 파이퍼^{Christian Pfeiffer}는 한 출판물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에서 제기된 소송을 분석했다. 그는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 백 명 중 약 한 명 정도만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³²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의 85%가 이를 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15%의 사례 중에서도 결국 가해자의 7.5%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때로 여성의 증언에 반대되는 증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파이퍼에 따르면 실제로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특수한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약 80% 정도인 여성 대다수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경찰이 대부분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옷을 입었고, 소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으니 당신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를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라고 한다. 물론 상대방을 유혹할 때 어설픔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중범죄자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드뇌브를 비롯한 이들은 분명 나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바에 갈 때마다 중범죄자를 최소 열 명은 마주칠 것이다. 그런데 드뇌브를 비롯한 이들의 기고문을 읽으면, 성희롱이란 마치 실수로 유리잔을 쓰러뜨린 것과 같은 어설픔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떠한 의도도 없이 말 그대로 입에서 튀어나온 제스처와 말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제시하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자신의 유일한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선을 수용하고 존중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가부장적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범죄와 같다. 미국의 시인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자신의 강연 '침묵을 언어와 행동으로 전환하기'^{The Transformation of Silence into Language and Action, 1977}에서 '나의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신경질적인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행동은 범죄와 같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타인의 신체를 친밀감이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공간을 점유하고 타인의 몸에 접근해 소비하고, 불가침권을 무시해 위계를 만드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험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범죄와 같다. 이런 행동방식은 자본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일뿐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며 차별적인 논리에서 기인한다. 자신에게 종속된 관계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학대하는 것은 시스젠더 남성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흑인의 머리카락을 묻지도 않고 잡아당기거나 피부를 만지는 경우도 있다. [...]

³² <https://www.tagesschau.de/investigativ/report-muenchen/verurteilungen-vergewaltigung-101.html>

카트린 드뇌브와 같은 사람들은 아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지배적인 상태를 만든 공범이다. 부유한 '백인' 시스템의 여성인 이들은 지난 수백 년간 여성이나 성애적 여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혀 왔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백인'이 아니고, 빈곤하고, 장애가 있거나 퀴어 성향인 여성은 폭력에 고통받는다. 그러나 이 폭력이 언젠가는 드뇌브를 비롯해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도 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오드리 로드는 앞서 말한 유명한 강연에서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을 이었다.

드뇌브를 비롯한 이들은 다른 여성들이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사랑의 낭만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고착시켰다. 왜 이들은 '누군가를 유혹할 자유'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맞서는 것을 두려워할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유혹하며 성가시게 구는 것을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또 어떤가? 이러한 유혹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유는? 미국의 작가 벨 훅스^{bell hooks}는 자신의 책 『사랑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Love}』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린 마음과 확고한 결심,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낭만적인) 사랑에 다가간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말에 두려워하며 대답할 것이라고 썼다. 이 모든 것이 낭만적인 사랑을 끝낼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서로 동등한 눈높이에서 솔직하게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에 숨막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안다. 낭만적 관습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낭만이 폭력적이라고 반박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낭만적 관계는 폭력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환상적인 베스트셀러다. 그럼에도 훅스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마치 모욕을 당한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훅스가 책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논지를 제시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훅스는 이 책에서 '사랑^{love}'과 '돌봄^{caring}'을 구분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정의와 밀접한 훅스의 정의에 따르면, 사랑은 행동이다. 훅스는 사랑을 권력 관계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뒤집는 가변적인 힘이라고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감정적, 지적,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반면 '돌봄'은 상대방을 보살피는 것이자 때로는 선택적으로 애정을 쏟는 것으로, 이 애정 때문에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부모도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또는 낭만적인 관계 속 폭력적인 파트너도 상대방을 돌볼 수 있다.

훅스에 따르면 이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무력하거나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훅스는 이에 대해 '가끔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대신에 파트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나를 포함해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의 낭만적 관계에서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했다. 폭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폭력이 언제나 남성에 의한 것도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도 가끔은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을 때도 있다. 게다가 남성이 지배적이며 배려심이 없다는 전통적인 관념도 오늘날 내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내가 아는 남성들은 대부분 젠더에 대한 파괴적인 관념에 대해, 그리고 이 관념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대해 매일 성찰한다. 이는 이들이 나와 가깝게 지내는 이유이자, 이들이 내게 중요한 사람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부장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 친구 무리가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일부 개별 사례가 아니라 우리의 (남만적) 공존이 어떻게 역사적, 사회적, 젠더 측면에서 구조화되어 불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며 퀴어적인 나의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작용한다. 물론 좀 더 미묘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심리학자 안-마텔라이네 티트게^{Ann-Madeleine Tietge}는 자신의 논문 '사랑을 하자, 젠더는 하지 말고!?'^{Make Love, Don't Gender!?}에서 소위 깨어있는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을 자세히 관찰했다. [...]

티트게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성애자 부부의 경우 아무리 가사와 돌봄 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해도 남성이 자신의 우위를 공고히 하는 젠더 지배관계가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일종의 모자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티트게는 페미니즘 성향의 잡지 '미시 매거진'^{Missy Magazine}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언뜻 보기에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여성 파트너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지배적이며 우위에 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 파트너가 그저 취미처럼 학문이나 예술적인 직업에 전념하는 경우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보살핌을 받으니 처음에는 의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파트너는 [...]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며 마치 아들같은 남성 파트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여성 자신의 행복은 주로 스스로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아 실현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감정적 측면에서 남성의 지배가 계속된다.'³³ 특히 남성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처럼 자신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더욱 강하게 고집한다는 점을 봐도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의무는 아니라는 핑계를 대는 자유인 것이다.

사회학자 예바 일루즈가 관찰한 바 역시도 결합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주로 남성의 특권이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그 외 다른 모든 젠더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일루즈는 자신의 저서 『사랑은 왜 아픈가』^{Warum Liebe weh tut}에서 경제적으로 남성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독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 현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또는 더 이상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학자인 일루즈는 이를 생물학적이거나 진화론적 추론을 가지고 다루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일루즈는 결합할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남성이 '아픈' 것이거나 '비정상'이라는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정상적'인 친밀한 상태를 요구하는 '정상적'인 심리적 상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루즈도 지금 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상적 규범'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나와 같은

³³ <https://missy-magazine.de/blog/2020/03/17/coole-lockere-sache/>

사람들에게 이처럼 젠더를 구분하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때때로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내 친구들은 이성애자 남성들이 성적이나 낭만적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가 그만큼 남성들의 행동에 자주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기까지 한다. 나는 어떤 남성에 대해 설명할 때 가끔씩 '그에게는 아름다운 남성성이 있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는 그가 위험한 느낌을 주지 않고, 내가 여성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깝게 행동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종종 친구들로부터 내가 데이트하는 남성이 여성인 자신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즉 너무 감성적이며 너무 구속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여성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이다.

심지어 동성 또는 퀴어 성향인 두 사람이 맺은 관계에서도 파트너들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두 사람이 각자 서로 다르고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 쪽은 소위 말하는 '여성적인' 역할을, 다른 쪽은 '남성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다. 한 쪽이 지배적이면, 다른 쪽이 싹삭하다. 한 쪽이 가정을 돌보면, 다른 쪽은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한 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는다. 따라서 벨 후크는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책임 '소통^{Communication}'에서 '우리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인 관계란 서로 상반되는 것의 결합이라고 알고 있다'고 썼다.

자신에게 없는 특성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끔씩 세상 앞에 좌절하는 반면, 나의 파트너가 지칠 줄 모르고 낙관적인 것에 감탄한다. 더 나아가 그는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 속 나의 설 자리를 요구하기를 원하며 또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젠더나 또 다른 반대되는 것에 대해 마치 공식처럼 우리의 내면에 자리잡은 특성 너머에 존재하는 상대방, 즉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이는 출신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반대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가 모든 젠더에 가하는 폭력이 역사적으로 남긴 흔적을 탐구하는 것과 교차적 페미니즘은 내가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규정하는 원칙에 반대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섰으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반쪽짜리 원이며 나머지 반쪽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플라톤의 개념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많은 것일 수도 있음을 매일 떠올리며 살아간다. 나는 감성적이며, 엄격하고, 냉정하고, 실용적이고, 구속적이고, 배려하고, 충실하며,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등 많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라난 핵심 가족이 가족의 진실 때문에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만의 진실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룹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을 계속해서 시험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

오늘날 나는 다자적인^{polygame} 관계를 포함해 낭만적인 관계는 관계의 기본 조건에 대한

서로의 합의를 토대로 할 때만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나에게 친밀함, 신뢰, 충성은 관계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열린 마음과 솔직함에서 신뢰를 얻는다.

규범과 기대가 가진 힘은 그 힘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규범과 기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침묵이라는 규범이 가진 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침묵이라는 규범.

친밀감과 애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폭력의 기저에 깔린 권력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더라도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각을 만들 수는 있다.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단어를 말로 표현하는 것, 내가 지금도 찾고 있는 그 진실들을 말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른 여성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다. 이 접촉은 그 말들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믿었던 세계에서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연을 이어갔다.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이 있기에, 나는 더 이상 전해져 내려온 진리에 동의하고 이를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도 한 사람의 자유는 그 상대방이 자유롭지 않다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질서의 힘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합의와 공정성에 기반한 진리를 찾자고 제안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지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그저 나의 자기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함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공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84-98쪽)

[...]

최근 몇 년간 '자기애'^{Selbstliebe}나 '자기관리'^{Self-Care} 등에 대한 요구가 불길처럼 번진 것은 우리 사회가 자기혐오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자기애나 자기관리와 같은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사실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한계를 조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내 손, 발, 팔, 다리, 머리를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나 완전히 지쳐버린 시계 속 톱니바퀴로부터 구해내는 것들이 떠오른다. 나태함이 괜히 생산성과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에 대항하는 정치적 무기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자기애와 힐링이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주류 사회의 자본주의 논리에는 훌륭하게 들어맞는다. 웰빙과 '자기관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도 소비를 통해 충족시켜야 할 약속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을 사랑한다면 구입하세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 구입하세요'와 같은 말이 있다.

그 밖에도 이런 말은 본질주의 논리를 따르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격언인 '너 자신이 되어라'^{Sei du selbst}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을 너 자신을 위해 최적의 상태로 맞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때 목표는 내가 감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발전해주기만을 바라는 나의 '진정하면서도 완전한 자아'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모든 장소에서 나 자신인 동시에 항상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나는 다시 어린 소녀가 되며 안정감 속에 내 몸이 다시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또 때로는 무대 위에 서서 말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나무처럼 온갖 방향으로 자라나고 또 자라난다. 나는 터키의 아디야만^{Adıyaman}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나이 들어가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어느 곳도 내 고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게 좋다. 나는 딸이자, 자매이자,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작가이자,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가끔씩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다. 나는 나의 경험과 일어났던 일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끔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끔은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의 신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역시 변화한다.

'사랑'^{Liebe}이라거나 '너 자신이 되어라'^{Sei du selbst}같은 말에 대한 대안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모순과 모호함, 방향 상실, 불완전함을 안고, 모든 논리와 일관성에 대한 요구를 넘어 자신의 신체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이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학자 치한 시나놀루^{Cihan Sinanoğlu}는 이에 대해 자아를 찾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아가 살아가고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전에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거나 정의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념을 따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거부와 증오의 틈에서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된 듯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타당한 토대는 다른 범주로 심지어 그

핵심이 정치적인 신념이기도 하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그러한 것처럼 나에게도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한한 권리를 주는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다. [...]

내게 급진적인 애정이란 나 자신에게 부드러우며 관대하고, 나의 의존성, 내가 가진 모든 모순과 두려움을 포함한 나 자신, 나 자신의 실패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 사회를 요구함에 있어 내가 급진적이며 굽히지 않기를 원한다. 소외된 이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혐오가 정당하다고 가르치며 이들이 혐오를 내면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고자 함께 투쟁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애정일 것이다.

(186-192쪽)



안토니아 바움 Antonia Baum

『앉으세요!』 Setzen Sie sich!

2018년 리나 무주어^{Lina Muzur}가 편집한 단편소설집 『여자가 말했다^{Sagte sie}』에 수록됨,
Hanser Berlin in der Carl Hanser Verlag GmbH & Co. KG, München

안토니아 바움의 단편소설 『앉으세요!』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은 각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상상의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다. 법정에서 대두된 질문은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이다. 성폭력이 얼마나 일상으로 벌어지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어깨만 한 번 들썩이고 받아들인 후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지 간결하게 서술한다.

안녕하세요? 나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원할 땐 뭔가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도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의를 받는(날라리이나 아니냐) 대상이죠.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내려다보고 음순을 잡아당기면서(벌써 수치스럽습니다) 강조하죠. 여기에 힘의 불균형은 없다고. 왜냐하면 아래에 누운 이 여자는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이죠.

좋아요, 다시 하죠. 안녕하세요, 나예요, 여자. 이 굴욕적인 말들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나는 굴욕을 당하는 여자이니깐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표결에 부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과 방청객 여러분, 여기 이걸 잠깐 봐주세요. 나의 두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으세요. 어차피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니깐요. (끊임없이 내 몸 위로 기어 올라와 그랬듯이 말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28일, 내가 1년 반을 근무한 에이전시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C도 참석했습니다. (보안상 C로 적겠지만, 이 첫 글자도 원래 이름과는 다릅니다.)

C는 우리 팀 팀장입니다.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C는 ‘남녀평등’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열간이는 걸핏하면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C는 맨스플레이닝과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극혐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C는 실제로 좋은 남자예요. 돈 트레이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주 위스키가 든 크리스털 잔을 들고 파티를 어슬렁거리죠. 1월 28일에도 그랬습니다.

1월 28일을 내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내가 1월 28일부터 내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논다니인 나는 그 남자가 사무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게 좋았어요. 나는 날마다 치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 그리고 다른 남자들 마음에 들려고요. 무엇보다 그 남자 마음에 들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나의 두뇌 맨 왼쪽 뒤에 앉아 있는, 유식해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 페미니스트가 말하네요. ‘이봐요, 그건 당신이 여자로서 경험한 사회화야. 그게 권력 관계란 말이에요. 당신은 여자가 뭔가를 성취하려면 남자들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하여간 여자가 가부장제도와 공모한 거라고요. 당신은 외모가 예뻐야 그걸 이루기가 가장 쉽다고 배운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알파 재킷을 입은 남자가 호통을 치는군요. ‘닥쳐, 이 X년아. 너도 은근히 원했잖아.’

그래요, 나도 어느 만큼은 원했어요.

내가 원했을까요?

C와 나는 에이전시 파티가 끝난 뒤 다른 파티에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벌써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조금 취했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C가 나를 칭찬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좋았어요.

중간에 방청석에서 질문이 나오는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당신도 그 남자에게 접근하려고 했나요? 당신 마음에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에게 꼬리를 쳤다는 말인가요?’

거기에서 나는 내 몸을 의식했어요. 내 몸은 정성 들여 가꾼 몸이에요. 몸을 보면 몸의 주인인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에요. 즉 시간이 많이 들죠. (나도 몸단장이나 화장이나 운동이나 제모를 할 때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문했어요. 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 경우엔 구체적으로 C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내 의지와 그들의 의지를 더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내게 골라주는 옷이 내가 고르는 것과 같을 거라는 것이죠.) 여하튼 내 몸에 있는

건 두 개의 젓가슴, 허리, 엉덩이 그리고...- 그 순간 알파 재킷을 입은 남자가 말하네요. ‘거시기!’

맞아요. 나는 내 몸을 의식하며 미소를 지었고 C에게 마구 미소를 보냈어요. 그는 눈을 반짝거리며 미소로 답했어요. 마치 사냥에 나선 사람 같았어요. 아마도 그때쯤 나는 가야 했을 거예요. 그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내 팔과 손을 만졌을 때, 시선을 내게 고정했을 때, 그때 가야 했어요. 그의 시선은 계약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걸 마주 응시하는 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나는 그를 마주 응시했어요.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게 좋은 순간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그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을 결정하고, 목표에 이르는 발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력적이고 힘 있는 그 남자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건 배우지 않아도,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예요.

왼쪽 뒤에 앉아 있는, 유식해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가 끼어드네요. ‘당신은 이기적이에요!’

되물겠습니다. 내게 이런 비난을 퍼붓는 당신은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아무래도 좋아요. 권력을 향한 의지는 나의 내면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에요. 털은 회색인데 덩수룩하게 늘어져 있어요. 입술은 너무 빨아서 험했고, 몸에는 살집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반응은 번개처럼 빨라요. 당신(유식해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과 당신의 그 타당한 이의 제기보다 빨라요.

C는 내게 그 파티에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자고 싶었죠. 하지만 내가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서명했던 계약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계약은 깨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는 원하지 않는 것도 상대방이 내게 원하면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젯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만족감이 예나 지금이나 보상이 되어 내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의식한다고 뭐가 달라지거나 특별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입술에 상처가 난 늙은 짐승을 이기기란 힘드니까요. 이 짐승은 크게 굶주려 있어요. 내가 남자의 마음에 들면 짐승에게는 먹을 것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들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끄집어내서 없앨 수는 없어요. 짐승은 나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그건 여자인 나까지 완전히 없애야 가능해요.

나는 C에게 함께 파티에는 갈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방문해야 해서 오래 머물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런 건 누구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C에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걸로 우리의 계약이 수정되었기를, 그것도 우리 사이에 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수정되었기를 바랐어요.

C가 웃었어요. C는 택시 안에서도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지금 누가 일어나는군요. 그러곤 나보고 놀랄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나가네요.

C는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다리가 서로 닿았어요. 나는 택시 문에 몸을 붙이고 앉아 그가 하는 농담에 웃어주었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농담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웃을 수 있다면, 그가 분명히 내 말에도 귀를 기울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에게 멋지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간 주도권은 내게 있었으니까요.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계속 웃었어요. 그의 옆에서 웃는 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서 짓는 개처럼 웃을 때도 있었어요. 땅의 구조는 바꾸지도 못하면서, 땅에 말뚝이라도 박을 것처럼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방청객들이 수군대는군요. 그 중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내가 짜증나는 건 이 굴욕적이고 거지같은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헬무트 카라제크 같은 남자가 반문하네요.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피해의식이 짜증스럽지 않은 줄 알아요? 이제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젠 뭐,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군요.’

좋아요, 서두르겠습니다. C는 내 얼굴에서 머리 몇 가닥을 쓸어 올리고 몸을 굽혀 내게 키스했어요. 나는 그의 키스에 답하지 않았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계속 키스하면서 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내 입이 그의 키스에 막혀 있어서 나는 그의 목구멍을 통해 직접 그의 머릿속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곧 집에 가야 한다고. ‘당장’이 아니라 ‘곧’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공손하고 싶었고 C를 무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내 뜻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폭행범처럼 보여서는 곤란했어요. 그건 내가 보기엔 과장 같았고, 우리 둘 다 피하고 싶은 농담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은 거부해야 마땅한 뭔가로 명백하게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을 지칭할 만한 이름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가 저녁을 그런 식으로 보낸 뒤에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말을 C에게 해도 괜찮을지 생각했어요. C의 혀가 내 목 깊숙이 들어왔어요. 밀어내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완전히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속으로 들어와 가슴께로 왔거든요. 벌써 1분 30초 전부터 그랬어요. 그는 내 가슴을 주물렀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 그에게 손을 치워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계속 내게 키스했어요.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기만 했어요. 나는 택시가 곧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30분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실망은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색하지 않을 테니까요. C는 내 손을 그의 다리 사이에, 단단해진 페니스에 갖다 댔어요. 진 바지를 통해 그의 성기가 느껴졌어요. 내 살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나는 손을 페니스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쨌든 그건 내 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황이었어요. 우연하게 배치되어 바로 그 모습을 만들어낸 원자들의 배열이었어요. 그런 건 개인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유식해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가 말합니다. ‘거기에 우연이란 건 절대로 없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이를 한쪽 팔에 안고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젊은 여자 방청객이 말하네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다 알아요. 미안하지만,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C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였어요. 그가 움직이는 틈을 이용해 나도 움직였어요. 손을 그의 페니스에서 떼고 얼굴에 내려온 머리를 끌어 올려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C는 내 치마 속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고 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었어요. 내가 대퇴부를 밀착시키자 그는 그걸 힘주어 벌렸어요. 아마도 그걸 흥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포르노를 보면 여자가 강제로 행복해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는 내 팬티에 손을 밀어 넣고 내 성기를 만지작거렸어요. 건조해서,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그새 정말로 속이 안 좋아졌어요. 나는 그가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모른다는 게 혐오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를 욕하고, 그의 우스꽝스런 성기를 욕하고, 택시 안에서 즉흥 섹스를 흥내 내는 그의 우스꽝스런 행동을 욕하고, 그의 우스꽝스런 퍼포먼스를 욕했어요. 그러나 더 혐오스러운 건 나 자신이었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C는 내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질 속에 들어와 있는 손가락으로 그가 그날 저녁 내내 만졌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다시 그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사람에게 내가 아직 대처할 줄 모른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너무나 미숙하고 멍청하게 내 몸을 휘저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지 못했어요. 나는 속으로 그를 제대로 엮 먹였고 그를 이겼어요. 이제 그는 다른 손가락까지 동원해 손가락 두 개를 넣었다 뺐어요. 그곳이 얼얼했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그가 내 고통의 표현마저 동의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가 멈췄어요.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거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건 내가 아는 미소였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미소였어요. “C, 오늘 밤 즐거웠어요. 하지만 화내지 말아요. 택시를 탔을 때부터 웬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집에 갈게요. 난 술을 못 마셔요.”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고마웠어요.

나는 아래쪽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이해를 구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술을 못 마신다는 게(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들 거라고 추측했어요. 남자들에게 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할 때마다 그 말이 좋은 인상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C가 대답했어요. 그때 다행히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묻는 것 같았어요. 택시 운전수는 몸을 돌려 우리를 보고 어서 결정하라는 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고 가서 즐겁게 보내요. 택시비는 내가 낼게요.” 내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C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나는 치마를 반반하게 펴고 차를 탄 채 집에 갔어요.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서 그의 얼굴을 보는 게 조금 곤혹스럽겠지만, 그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지요.

한동안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방청객 몇 명이 더 밖으로 나갔어요. 헬무트 카라제크 같은 남자는 몇 사람을 불러 모으더니 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내 히스테리컬한 묘사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죠.

자, 옷을 완전히 벗었으니 이제 나는 알몸으로 무력하게 등을 뒤로 기댈 수 있겠네요. 내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한, 여기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아 누가 사진을 찍고 인터뷰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스런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또래에 생김새도 나와 조금 비슷한 여자가 일어나서 말하네요.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게 왜 하필 지금에 와서야 생각났나요?’

(11-19쪽)

요하나 아도르얀 Johanna Adorjan

『안녕^{Ciao}』

2021, Kiepenheuer & Witsch

요하나 아도르얀의 소설 『안녕』에서 주인공 한스 베네데크는 ‘늙은 백인 남자’의 전형이다. 칼럼니스트인 그는 자신과 자신의 견해가 늘 옳고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의미 상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 위기와 씨름하는 동안 그에게 흥미진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인 크산디 로호너를 인터뷰하는 것이다.

"제가 예약을 해놨는데요." 헨리에테가 크산디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미 메일로도 알려놓은 상황이었다. 헨리에테는 긴장했다. 크산디 로호너가 그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미리 상대방에 대해 알아두려고 헨리에테는 위키피디아에 나온 로호너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읽었다. 24세의 여성치고는 수록된 내용이 상당히 길었다. 심지어 ‘논란’이라는 항목 하에 별도의 글까지 있었다.

알렉산드라 ‘크산디’ 로호너는 2000년이 시작되기 전 린츠에서 태어나 빈에서 성장했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독일에서 살았다. 19세에 직접 찍어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로 유명해졌는데, 셰어하우스 주방 식탁에 앉아 세상사를 풍자적으로 논평하는 내용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페미니즘과 성불평등을 자신의 관심 주제로 정했다. 그녀의 논평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등장은 갈수록 자신만만해졌으며, 그녀의 유튜브 클립은 인터넷을 돌아다녔다. 텔레비전도 그녀를 발굴했다. 머리를 검정이나 옅은 금발, 때론 핑크빛으로 염색해 세련돼 보일 뿐 아니라, 과거에 남자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약점과 특권과 신념을 가지고 현 세태를 훤히 꿰고 있는 젊고 거침없는 여성 페미니스트라면 당연히 공개 토론회로서는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가 토론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른 토론자들이 요즘은 대체 어떤 말을 해야 안전할지 채 생각하기도 전에, 크산디 로호너는 이미 세 번이나 오류 없이 LGBTQ+를 정체성 정치에 관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TV 스튜디오의 퀴퀴한 공기를 뚫고 새 시대를 알리는 미풍이 불어와 수상기 앞에 앉아 있는 시청자들을 선잠에서 깨웠다.

크산디 로흐너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어느 정치 토크쇼에서 기독교 사회연합^{CSU} 소속 여성 정치가로부터 거의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을 교묘히 이끌어내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사회자보다 준비를 더 잘 해왔으며, 그 불쌍한 여성 - 물론 전혀 불쌍하지는 않고, 지지난 세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프랑켄 출신의 극도로 비호감인 여성 - 에게 그녀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차례로 인용하면서 맞섰다. 방송의 일부 내용이 인터넷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으며, 해당 여성 정치가는 얼마 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 그때부터 크산디 로흐너는 일종의 현대판 여자 로빈 후드로 통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녀를 숭배하고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살해 협박을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이제 그녀는 첫 소설도 썼다. 제목은 <시작합니다>였다. 3주 전에 발간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당연했다. 저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이니까. 착한 마녀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12세 소녀의 이야기였다. 헨리에테는 그 소설도 읽었다. 집으로 발송되어 남편이 받아놓은 후 몇 주 동안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하고 주방의 책 더미 속에 묻혀 있던 보도용 신간 견본이었다. 문학적으로 대단한 성공작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 헨리에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끝에 가서 소녀, 또는 그때까지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정의되었던 아이(세상을 위해 희생되는)는 죽는다. 헨리에테는 엄마가 된 후로 아프거나 죽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읽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다.

크산디 로흐너의 데뷔작에 대한 비평은 놀라울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헨리에테는 그게 젊은이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주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보다 더 시의성 강한 주제는 없을 터였다.

마침내 종업원이 그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을 때, 몇몇 손님들의 머리가 만화에서처럼 정신없이 두 번씩이나 크산디 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듯했다. 아니, 어쩌면 거기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 어떻게 지내나요? 지금 분명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요." 자리에 앉고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지러 간 뒤 헨리에테가 물었다. "아, 그럭저럭요." 크산디 로흐너가 말했다. "사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보니 여자의 머리가 무지막지하게 커 보이네. 헨리에테가 생각했다. 마치 다른 사람, 훨씬 키가 큰 사람의 머리를 그녀의 아담한 몸 위에 올려놓고 나사로 고정한 것 같았다. 아마도 이 때문에 크산디 로흐너의 키가 자신보다 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실제로 얼굴은 크고 넓적한 반면 키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영화배우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효과를 알고 있었다.

헨리에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크산디 로흐너의 팔로어였다. 그곳에서 크산디는

헨리에테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유명인사의 한 명이었다. 크산디는 특히 트위터에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 논평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비꼬거나 기분 나쁘게 쓰지 않고 핵심만 말했다. 그 점에서 헨리에테는 그녀를 존경했다. 헨리에테가 인터넷에서 뭔가에 대해 논평하려 할 때마다 그녀의 말은 잘난 체를 하거나 분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을 몇 분 뒤에 삭제했는데 어느 때인가 자신은 이 미디어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건 그녀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반인이니 말이다. 트위터에서 그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녀의 지인이었다. 어느덧 그녀는 트위터의 글들을 소극적으로 읽기만 했다.

헨리에테는 그 젊은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얼추 그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태어난 수많은 여성들이 갑자기 등장해 자신을 당연하게도 페미니스트라 칭했다. 그들은 과거에 페미니스트라고 고백할 때면 감수해야 했던 거부 반응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머, 거드랑이 털’, ‘어머, 알리스 슈바르처, 어머 보라색 멜빵바지.’ 그녀의 학창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비호감의 전투적인 여성해방 운동가로 보이지 않으려면, 또는 조만간 경험할 밤의 유흥에서 ‘무경험자’로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큰 소리로 웃는 게 가장 좋았다.

크산디는 이 모든 걸 과연 알고 있었을까? 그녀가 트위터의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왔다는 게 헨리에테는 아직도 놀라웠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성이 이젠 베네데크라는 건 사실 위키피디아에서 남편 한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였다. 한스 베네데크의 ‘생애’ 항목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그는 시인인 아내 헨리에테 바이스와 두 딸과 함께 베를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저널리스트 한스 베네데크와 결혼했다는 걸 크산디는 어떻게 알았을까?

헨리에테는 그날 저녁,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여성의 관점에서 오늘날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나이로 따지면 그녀는 딸뻘에 가깝지만 말할 수 없이 멀게 느껴지고 뭔가 울발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악의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았고, 남편이 편집장을 흥내 낼 때마다 (그럴 땐 빈 사투리를 형편없이 구사해서 헨리에테는 이것 싫어했다.) 하는 말마따나 ‘분별이 있는’ 사람 같았다.

크산디 로흐너가 자신의 시집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도 헨리에테로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여 년 전에 결혼 전의 성을 달고 출간된 그 시집은, 지금은 오래 전에 잊혔지만 당시 아주 짧은 기간이나마 헨리에테 바이스가 위대한 문학적 희망이라도 되는 듯이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

사실 크산디 로흐너는 헨리에테의 남편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한스 베네데크. 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산디가 말했다. 한스 베네데크의 견해에 늘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의 글쓰기 스타일은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글의 도입부로 말한다면, 그 분은 제 전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헨리에테와 남편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20년 가까이 됐어요."

딸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

"열세 살이요."

한스는 '디 차이퉁'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고 했다.

"몰라요. 한평생일 걸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했어요."

남편과 발터 빈디쉬의 사이가 좋으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곳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빈디쉬가 그녀처럼 오스트리아 출신이어서일까?

"아, 그럼요.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내요."

한스가 남편이 될 거라는 걸 금방 알았냐고 했다.

"글쎄, 알았느냐... 그냥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었으니까요."

"빠졌었다?"

"초기의 열병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셨군요."

"네, 그때 이미 엠마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란 건 말할 수 없이 낭만적인 거잖아요."

크산디는 한스가 헨리에테의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내가 실제로 자기보다 대단한 천재일 경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서요."

빈정대는 투로 하는 말은 아닌 듯했다. [...]

"지금은 어떤 글을 쓰세요?" 크산디가 물었다.

"그 시집이 제가 펴낸 유일한 책이에요. 이제 더는 글을 쓰지 않아요."

"아, 네. 그럼 무슨 일을 하세요?"

"오랫동안 경매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요가 강사고요."

크산디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헨리에테가 제 심정을 그녀에게 투사한 것일까?

"당신은 뭐를 전공했어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헨리에테가 재빨리 물었다.

"독문학과 사회학이요. 하지만 중간에서 그만두었어요. 그 후에 라이프치히에서 문학연구소에 있었어요."

"흥미로운데요. 그런 건 무얼 배우는 건지 물어볼 사람이 드디어 나한테도 생겼네요."

"문학적 글쓰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줄 알거나 아니면 할 줄 모르거나예요. 안 그래요?"

헨리에테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인지는 알지 못했다. 맞는 말일까? 결국 그건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그걸 배워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나은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헨리에테는 40대 중반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요가 강사 자격증이 있었다. 대단히 비쌌던 5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고, 일주일에 네 번 프렌츠라우어베르크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강습을 했다. 수강생들은 한 시간에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다. 수강료의 절반은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부했다. 하지만 이런 건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었다. 안 그런가? 사실을 말하자면 한스 베네데크의 아내로서 그녀는 직업을 갖지 않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 [...]

그러다 어느 순간 헨리에테는 미투로 화제를 돌렸다. 실수였는데, 그녀는 뒤늦게 그걸 술 탓으로, 그리고 커져 가던 자신의 불안함 탓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미국의 코미디언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후레자식이 될 권리는 있잖아요." 그녀는 방금 두 번째로 이 말을 했다. "어느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한다면 여자는 끊으면 돼요. 전화를 붙잡고 그 남자가 끝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그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잖아요."

"헨리에테,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죠."

헨리에테는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생각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 말했다. 그녀의 논리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크산디가 이 주제를 그녀보다 더 철저하게 사고하고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게 그녀의 직업이었다. "후레자식이 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헨리에테는 세 번째로 이 말을 했다. 그리고 와인도 어느덧 세 잔째였다. 크산디는 대항 주스를 마셨다.

"그 남자는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따라서 막강한 힘을 가진 코미디언이에요."

"그래도 전화는 끊을 수 있잖아요."

"그 남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코미디언이고,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듀서예요. 여자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요."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한 세기 전의 인물처럼, 늘 가해자인 남자들 편에 섰던 그제끼의 배신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을 뿐이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즐기차게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보세요!'라는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전화는 끊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불평하는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헨리에테는 위로 쳐들고 제스처를 하던 손을 내려뜨렸다. "맞아요. 나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인생에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업계에서 그 남자와 무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당연히 미투가 나올 수밖에요."

"나는 그가 프로듀서까지 한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덧 헨리에테는 와인 때문에 사고하기가 힘들어졌다. 너무 빨리 마신 것이다.

"아니, 나는 미투가 있다는 게 좋아요." 헨리에테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눈길도 떼지 않고 주스를 빨대로 빨아 마시는 유명한 젊은 페미니스트의 갑자기 말뚱말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거나, 권력 남용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누가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과격하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그걸 전적으로... 나는 그가 프로듀서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헨리에테는 남편 한스의 경쟁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젊은 전문 기자들에게 집요하게 추적당한 어느 영화감독의 이름을 뱃다가, 몇 문장을 다 말하기도 전에 모순에 빠졌다. 그녀가 보기에 크산디는 그 모순을 즐기듯이 해부한 뒤 그것을 의기양양하게 헨리에테에게 내밀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에 대해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제 주장을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헨리에테가 말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걸 알지만, 헨리에테는 독일의 첫 미투에 관해 인터넷에서 수많은 기사가 나온 걸 보았을 때 언제나 제목만 읽었던 게 사실이다. 얼굴이 붉으죽죽하고, 벌써 나이가 들고, 이젠 어차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감독에게 연민이 느껴졌다. 뭐, 그건 감정의 과장이었다. 하지만 조금도 그럴 만한 성과가 없었는데도 그는 오랜 세월 독창적인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다 지금은, 그를 천재로 오인하고 천재에게 많은 걸 허용했던 시기에는 관대히 봐주고 넘어갔던 일로 갑자기 벌을 받았다. 그녀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생각났다. 이 재판의 획기적인 점은 새로운 법이 소급 적용된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그리고 이젠 미투도... 유사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 잠시만...

"그게 성폭행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크산디가 물었다.

헨리에테는 피가 뺨으로 쏠리는 걸 느꼈다. 아니, 그녀는 알지 못했다. 크산디는 빨대로 그르륵 소리를 냈다. 당장 새 음료를 시키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군. 헨리에테는 이렇게 생각하고 종업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래요,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죠." 크산디가 말했다. 몇 분 뒤 밖으로 나왔을 때 크산디가 부른 우버 택시가 벌써 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잠깐 다정하게 손을 흔들고 떠났다.

(7-32쪽)

[...]

빈디쉬는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한스를 보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스는 늦게 온 것에 대해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다.

"커피로 하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빈디쉬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것과 같은 걸 가져다 달라고 했다. "나쁜 소식이 있어." 그가 말했다.

"우와."

"그것도 대단히 나쁜 소식."

"그래?"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들어. 지금 저들이 나를 표적으로 정했어. 뢰르네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

"아하."

"자네는 어제 거기에 없었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진짜로 자네가 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말해줄게." 빈디쉬는 다 마신 에스프레소 잔

가장자리를 쓴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 여자가 나를 뭘로 쓰러뜨리려는지 생각해 봐. 유럽 최고의 마일스 데이비스 팬이자 제임스 브라운의 팬인 나를. 게다가 빌리 홀리데이의 팬인 나를. 한스, 내가 빌리 홀리데이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네도 알지? 언젠가 내가 홀리데이의 기념일에 쓴 머리기사를 자네가 편집하지 않았어? 그게 자네였지, 아마?"

"물론이지." 한스가 말했다. "대단히 훌륭한 기사였어. 잊을 수 없는."

"하지만 뵘네에게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야. 그 여자가 이 생각을 그 작은 두뇌로 어떻게 날조했는지 말해줄까? 이건 순전히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자네는 안 믿을 거야. 잘 들어봐."

그는 전날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다. 큰 회의였다. 모두가 참석했다. 보통 문화부 회의에는 나오지 않는 프란치스카 뵘네까지 참석했다. 빈디쉬가 묘사한 대로, 처음에는 한스의 크산디 로흐너 인물평론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아직 쓰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더 들어봐."

뵘네는 여자 페미니스트에 관한 인물평론은 여자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을 하면서 빈디쉬는 혀를 내밀고 양손의 중지로 작게 춤을 추는 제스처를 취했다. 어쨌든 그런 건 여자 혼자 써야 한다고 했다. 문화부 여기자들이 편집국을 끌어들인 게 분명했다.

"내가 그걸 얼마나 잘못됐다고 보는지 자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빈디쉬가 말했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인간이... 특히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이... 그는 이걸 특별히 젠더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에스프레소 손가락을 탁자에 내동댕이쳤다.

발터 빈디쉬는 흥분해서 말했다. 한스는 그가 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 혼잣말을 하는 걸 자주 들었다. 그럴 때면 그는 이말 저말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재빠르게 그가 좋아하는 혐오 주제인 '문화적 도용'으로 넘어갔다. 빈디쉬는 이 주제가 그를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는 빈에서 인디언으로 분장하고 다닌 적이 있었으나, 그 스스로 수천 번이나 해명했듯이 그건 폄하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인디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스, 난 카우보이는 당연히 싫어했어!" 그는 갈수록 세상이 모든 걸 협소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인간이 인간으로서 무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세밀하게 하위 집단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한스는 빈디쉬가 곧 TV에서 본 미국의 시위대 얘기를 꺼내리라는 걸 그가 말하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 그건 "유대인들이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나선" 시위였다. "왜 그냥 인간으로서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거지?" 머잖아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 여성들이 열대 우림의

보존을 위해 시위하거나, 논바이너리 흑인들이 시청료 폐지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혹시 벌써 그러고 있는 건가?"

빈디쉬는 너무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 때문에 한스는 이 비꼬듯 나온 질문이 어쩌면 수사적인 질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아니." 어느새 그가 이렇게 대답했지만, 빈디쉬는 생각에 빠져 있느라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전부 다 미쳤어. 미쳤다고." 마침내 빈디쉬가 중얼거렸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 그래, 회의. 회의 얘기였지." 그는 공동 저자인 한스를 변호했고, 한스가 '디 차이통'을

위해 세운 공을 주지시켰고, 그를 위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했다. 궁금하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빈디쉬는 자신이 끝까지 맞서 싸웠던 그 싸움을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스가 물었다.

"기운 내, 한스. 자네는 다른 좋은 기사를 쓸 거야." 빈디쉬는 이렇게 말하며 한스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여기에 얼룩 묻었어."

"알아..."

"... 이 신문사가 아니더라도."

그 후 몇 분 동안 한스는 다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신문사는 감축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 망할 뵘네가 부서 몇 개를, 예컨대 스포츠와 경제부를 합치고, 문화부와 사회부를 통합해버린 것이다. 다 알다시피 빈디쉬는 사회부가 어차피 불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사회에 대해서라도 쓴다면 읽어줄 만하지. 그런데 아니야. 기자들은 그냥 영화배우 B와 C에 대해서만 쓰잖아.") 이걸 이 신문의 두 부서에 있어서는 한 부서의 장만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편집국은 사회부장인 마라이케 폰 쿠르티를 선택했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그만두는 거야, 한스." 이 대목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의 뜻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빈디쉬는 그렇게 말했다.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토론은 우리 시대의 문화 투쟁의 다른 장면으로 확대되었다. 키워드는 빌리 홀리데이였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빈디쉬 자신도 몰랐지만, 갑자기 더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문학적 개념의 추후 교정에 대해 문화부가 어떤 입장인가의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

"그때 내가 N-단어를 사용했어. 그냥 단어 전체를 말했어, 한스." 빈디쉬는 좌우를 살피더니 한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고 그의 귀에 그 단어를 속삭였다. "하지만 난 누구를 모욕하려고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인용한 거였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낱말의 예시로.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쓴 거였어. 내 말 뜻을 알겠어, 한스?"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더니 뵘네가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N-단어를 입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나는 그걸 단지 기호학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야. 내가 주관적으로 채색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문자들의 조합으로 사용한 거야. 완전히 중립적으로... 내용에 그 어떤 색채도 귀속시키지 않고... 색채라.. 하하." 빈디쉬는 표가 나게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한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힘든 시기야. 우리 둘은 아직 피해자라고도 할 수 없어."

한스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한스. 이 시대가 지난 뒤 우리의 어떤 것이 남아 있을지 무척 궁금해."

(233-238쪽)

요바나 라이징거 Jovana Reisinger

『앞서간 여성들 Spitzenreiterinnen』

2021, Verbrecher Verlag

요바나 라이징거의 소설 『앞서간 여성들』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이름은 페트라, 올리, 브리기테 등이다. 독일 여성 잡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 여자들은 평범하면서도 독특하다. 또한 사회적 원인을 가진 개인적인 문제와 씨름한다. 한 예로 페트라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레즈비언이고, 직장에서 불행하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그녀를 압박한다. 또 다른 여성 티나는 파트너에게 맞고 산다.

페트라

페트라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 그것을 아는 데는 여자의 측은 필요 없다. 오직 시계만 있으면 된다.

평일, 이른 오후 시간.

점심시간이 끝나자 남자들이 거들먹거리며 커다란 철문을 지나 갤러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곳 한가운데의 안내 데스크에 페트라가 앉아 있다. 남자들이 소포와 우편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페트라는 이 도시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갤러리 중의 한 곳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위층 남자들의 우편집배원 같은 역할도 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사적인 배달원, 혹은 비서인 셈이다. 페트라가 고용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갤러리나 최상층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 중 한 곳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규정이다. 남자들은 특히 기분이 좋을 때면 개인적인 안내를 요구한다. 물론 링크와 함께. 페트라는 친절을 제공하는 대가로 봉급을 받는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태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건 다른 사람들만이 알아본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바로잡는 걸 도와준다.

페트라는 조금 남은 생채소 샐러드와 베어 먹고 난 통곡물 빵을 옆에 놓고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기다리는 여자. 무엇을 기다릴까? 비상식적인 남자들과 비상식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그것도 날마다. 때가 돼서 누군가가 따분해질 때까지 영원히 되풀이된다. 페트라는 그런

만남을 따지고 들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만남이 일어나도 내버려두는 대가로 봉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곳은 어차피 만남의 공간이다. 미술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14시. 이제 시작될 거다.. 페트라는 책을 펴고 맥북을 닫는다. 빈틈이 없다.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면 책을 덮고 맥북을 여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른다. 안마당을 탐색하며 내다본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갤러리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세상이 무엇을 제공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남자들은 늘 뭔가를 찾는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도 그녀가 배운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또는 가능한 한 일이 적게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다. 그래도 결국 어느 때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여자로서 살아가는 전제조건이다. 비극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게 힘들다는 걸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다. 페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작은 새 몇 마리가 창문 앞에서 신나게 뛰어 논다.

“아예 무시해 버려.” 페트라의 어머니가 말한다. “그들은 네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느낌으로 알아. 그리고 혼란스러워할 거야. 애야, 남자들이란 그래. 네가 너무 세련돼서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 페트라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딸의 무지에 놀란다. “젊은 여자들엔 왜 그렇게 늘 혼란스러워할까?” 그녀는 바이에른 사투리로 중얼거리고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젓는다. “너는 왜 대체 혼란스러워하니? 남이 보여주는 관심을 즐겨! 결코 나쁜 게 아니야! 직장에서의 추파? 나한테는 그런 추파를 던질 사람도 없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거나 할까!”

어머니와 딸은 소리 내어 웃는다. 아픔을, 좌절을, 무례를 웃어넘긴다. 엘레와 페트라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함께 웃었을까? 그건 그들의 유용한 방법이 되었다. 만병통치약이다. 그걸로 날마다 옆집 정원의 벌거벗은 남자를 웃어넘긴다. 그는 정원 일을 하는 엘레를 관찰하고, 그와 동시에 관찰당하는 그녀의 무력함까지 관찰한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고 엘레는 말한다. 페트라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안다.

14시 15분. 페트라는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다. ‘가시방석에 앉다’라는 말은 그녀의 이모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사실 지금 그녀는 임스(Eames) 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이케아 의자에 앉아 있다. 싸구려 복제품이다. 특가품.

“아무나 비트라 의자에 앉을 수는 없죠. 안 그래요?” 회사 대표는 의자를 들여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그럴 수는 없죠.” 페트라가 맞장구를 쳤다.

여기에서 진품의 디자인 클래식 의자에 앉은 사람은 대표뿐이다. 이 정도의 갤러리라면 일단 그런 물건을 사들일 여유는 있어야 한다. 전화가 울린다. 누가 관람 시간을 물어본다. 페트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가시방석이 점점 다가워진다. 페트라는 이 남자들을 그리 간단하게 웃어넘길 수 없다.

어머니가 옆에 없으면 더더욱 웃어넘기기가 힘들다. 먼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이고 그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흥을 깨는 사람과는 정반대다.

페트라라는 티끌 하나 없는 자신의 블라우스를 점검하고, 휴대폰의 셀카 모드로 치아를 보며 음식물 찌꺼기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다크 서클을 살펴본다. 효과 좋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왜 요즘 이게 다시 올라올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적절한 화장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엉뚱한 곳에서 돈을 아낀 것이다. 나이를 먹는 기본 자세가 아니다. 30세의 여자라면 이 문제를 오래 전에 고민했어야 한다. 일찌감치 현명하게 대비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그 어떤 여자도 피할 수 없다. 확실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아름다운 딸이 있다는 것이다.

페트라라는 책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명패를 본다. 키우기 쉬운 화분의 식물을 바라본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런던에서 미술 공부를 중단하고, 뉴욕의 광고회사에서 1년간 실습을 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상위 성적으로 미술사 학위를 받고, 암스테르담의 한 박물관에서 보조 큐레이터로 채용된 뒤였다. 지금은 뮌헨에서 공식적으로 비서로 일하지만 사실은 감독 인력이다. 이 갤러리에서는 임시직으로 일한다. 페트라라는 외모가 아름답고, 교양이 있고, 근면하고, 이상주의적이고, 가난하고, 빛이 있고, 출세할 마음이 있다. 다 알다시피, 검소하게 살면 자신의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걸 금세 느낄 수 있다. 참고 웃어넘기는 능력은 특히 노동자 자녀들에게 필요한 품성이라고 페트라라는 배웠다. 웃어넘기는 태도, 인내, 규율, 끈기, 참을성 같은 것 말이다. 허세는 여자에게 좋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페트라라는 차라리 겸손하게 행동한다. 저공비행을 하면 그다지 크게 추락하지 않는다. 특히 낙차가 클 수밖에 없는 여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페트라라는 피곤하다. 지난 주말에 또 가족을 방문했다. 가족은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어서 편리하다.

4시 30분. 남자들이 안마당에 들어선다.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페트라라는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해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스포츠 활동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힘은 들지만 그녀의 상태를 개선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정말 무심한 여자의 얼굴을 한다.

철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첫 걸음을 들여놓으며 시작한다.

남자 1: “차오 벨라!”

남자 2: “우리한테 뭐 온 것 있어요?”

남자 1: “페트라, 페트라, 페트라, 이 부드러운 봄날에 우리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지 않을까요?”

남자 2: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

남자 1: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딱한 일이죠.”

남자 3: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커피를 타주고 우리가 당신 옆에 앉는 건 어때요?”

남자 2: “커피를 아주 맛있게 타게 생겼어요.”

페트라: “여기 소포 있습니다.”

남자 1: “아, 또 껌하시네.”

남자 2: “우리가 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말하지 않았나 보죠?”

페트라: “그리고 싶지만 일을 해야 해요.”

남자 3: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주 편해 보여요.”

남자 2: “근무 중에 책을 읽으려고 굳이 대학에 다녀야 했나요?”

페트라: “네.”

남자 3: “그런데 말이죠. 우리 청소부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이 없다면 우리 사무실 분위기에도 신경 써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청소부가 받는 시급을 줄게요.”

남자 2: “어때요? 당신의 정규 봉급보다 많겠죠?”

남자 1: “하하하”

남자 3: “농담이었어요. 페트라는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남자 2: “당연하지. 페트라는 쿨한 여자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고리타분하지 않거든.”

남자 1: “내 여자 친구한테 수작부리지 마, 알았어? 농담이에요!”

남자 3, 남자 2, 남자 1: “그럼, 안녕 페트라. 내일 봐요.”

충동적이고 아무 걱정 없는 이 남자들은 우편물을 들고 무신경한 기운을 내뿜으며 전시장을 느릿느릿 걷는다. 한 명이 짧게 기지개를 켜다. 척추에서 딱 소리가 난다. 페트라는 책을 편다. 그녀는 이런 자신감이 부럽다. 전시장에서 위층으로 통하는 문이 닫히자 한시를 놓인다. 어깨에서 긴장이 풀린다. 뭔가를 해치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오늘은 남자들을 해치웠다. 하루의 일과에서 다음 지점으로 넘어간다.

페트라는 이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다. 다른 도시와 다른 주에도 몇 통의 지원서를 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그녀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페트라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수행한다. 그 어떤 의무나 부담도 그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걸 방해하지 못한다. 페트라는 희망이 넘친다. 그와 동시에 절망적일 정도로 능력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루 9시간, 시간당 10유로의 임금, 주5일 근무다. 그것도 물가가 높은 뮌헨에서.

“애, 너도 알다시피,” 벨라 이모가 끼어든다. “상황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거기엔 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야. 이 경험이 장차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어. 두고 봐. 그때가 되면 아마 내 생각이 날 걸. 뭔가 교훈을 얻고 내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테니까.” 이모는 맞는 말을 자주 한다. 벨라 이모는 인생과 사람에 대해 잘 안다. 벨라 이모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여자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할 때 필요한 알파와 오메가다.

흰색 디펜더가 안마당으로 들어온다. 누가 오는지 페트라는 안다. 대표, 더 정확히 말하면 대표의 부인이다. 그녀는 이제 모든 권한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 같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 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무런 발표도, 팀 미팅도, 심지어 공개 성명도 없다. 대표가 갑자기 나오지 않더니 대표의 부인이 남편의 집무실을 뜯어고치고 이제 발표를 한다. 대표의 부인에게 좋은 일이라고 페트라는 생각한다. 관리직에 여성들이 더 많다. 특히 문화계가 그렇다. 페트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보고 싶다. 항상 곳곳이 버틸 것이다. 언제나 기회를 엿볼 것이다.

엔진이 멈춘다. 대표 부인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연다. 작은 닥스훈트 한 마리가 튀어나와 곧장 출입문으로 달려간다. 그곳엔 어느덧 페트라가 나와서 서 있다. 그녀는 친절하고, 또 대표 부인이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표 부인은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걸 모른다. 자동차, 개, 직장, 도시. 페트라에게는 이런 게 멋있어 보인다. 여기에 수렵 면허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대표 부인은 채식주의자다.

“안녕, 페트라! 오늘은 어때요?”

“막시! 좋아요.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전화번호 목록 있어요.”

“아, 음, 고마워요. 또 다른 일은?”

“그 외에는 별 일 없습니다. 나중에 아카데미 학생들이 올 거예요. 대표님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전시회장을 안내하실 거죠?”

“맞아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구요?”

“아카데미 학생들!”

“아, 네.”

“페트라, 미술학도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이 그라치아를 데려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끄니까. 곧 엄마가 안내를 할 텐데, 이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고 올게요.”

“나가 있는 동안 전화벨도 울리지 않게 소리를 꺼놔요. 벨소리가 나면 얼마나 황당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겠죠. 중요한 사람들은 나의 집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려야죠.”

“얼마 동안 나갔다 올까요?”

“한 시간. 학생들이 오기 전에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그들이 페트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테니까. 그러면 혼란만 일어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그래야 내가 편안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막시.”

페트라는 개와 어린이에 관해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별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니까. 과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해 보이니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뭔가 유의미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돌볼 수 있는 무엇을. 그리고 훌륭한 자질은 이런 것들이다. 자기희생, 희생정신, 헌신적인 돌봄. 모성. 여성적 특성. 배려하는 성격. 세상을 화합시키는 특성들. 페트라에겐 이런 게 끔찍하다.

페트라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그녀가 앞으로 모성의 본능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페트라의 여자 친구들은 그게 결코 자연스런 선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페트라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누구도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 그녀의 커밍아웃마저 특별한 장애물이 못 되는 것 같다.

“생체 시계가 작동하고 있단다, 페트라. 앞으로 그걸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히 수태를 하겠지.” 벨라 이모는 이렇게 소곤대고 혼자 씩 웃으며 아페를 스프리츠에 손을 뻗었다. 마음씨 좋고 상냥한 신사가 페트라에게 과일 접시라도 건네주듯이, 또는 스무디로 비누 거품칠을 해주듯이 수태를 한다. 건배!

페트라는 그라치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화려한 옛날 건물을 지나고, 주택을 지나고, 드디어 인파가 많은 거리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카페 바깥에 앉아 열심히 햇볕을 쬔고 있다. 거위털 코트를 입고, 겨울 부츠를 신고, 털모자를 썼다. 기상 상태를 보건대 이미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고 건강해 보인다. 쾌활하고 생기가 넘친다. 즐겁고 상냥해 보인다. 뺨이 발그레하고, 치아는 하얗고, 지갑은 두둑하다. 신분, 신분, 신분. 페트라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건 무자비한 햇빛 때문이기도 하다.

갤러리는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지역에 있지만, 하필 골목길을 돌아 또 골목길 안에 들어서 있다. 여간해서는 우연히 발견하기도 힘들다. 숨어 있는 진짜 명소다. 전문가만 아는 곳.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 아는 사람만을 위한 곳. 자연히 평일에는 조용하다.

“와 호화스럽다!” 이곳을 보고 이모가 말한다. “그런 직업이 아직도 있단니. 놀라운데!” 그런 직업은 완전히 쓸모없는 거라고 이모는 생각한다.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직업이 그렇다고 한다. 물론 주름 개선 주사를 맞은 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오래 햇볕을 쬔 주름 대신에 흉터가 생기면 우는 여자들이 있는 건 이모도 인정한다. “그래도 그 여자들은 다시 곧 마음의 평정을 찾아.” 이모가 말한다. “하지만 갤러리 주인은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지?” 이모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비서는 사회에 무슨 도움을 주지?” 이모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아무도 네가 존재한다는 걸 몰라. 내 구두 수선공이 너보다 더 쓸모가 있어.”

아프다. 한 방 맞았다. 그런 대화를 하면 페트라는 심하게 어지럽다. 구두 밑창과 신발을 다루는 전문가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지만 완벽한 실패자가 된 느낌이다. 왜냐하면 서른 살에 무슨 대단한 경력이 시작되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족의 골칫거리다. 처음엔 오랜 기간 대학을 다녔고, 그 후에는 돈도 없고 살 집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얻었고, 게다가 레즈비언이다. 아 어찌나! 어머니와 이모는 이런 건 웃고 만다. 벨라와 엘레는 항상 걱정거리를 열심히 웃어넘긴다.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은 금방 잊을 수 있다. 언제나 부드러움을 잃지 말자. 거친 여성은 위협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데 슬픔에 젖은 여성이 가장 위협적이다. 여자란 모름지기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해야 한다. 외양은 정돈되고 내면은 지극히 사랑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한다.

페트라는 개의 목줄을 푼다. 그라치아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개는 시간제 여직원을 쳐다보며 그녀가 행동하기를 기다린다. 행동, 반응. 긍정은

직업에서 더 나은 전략이다.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친절하게 미소 짓고, 동의하는 것. 네, 네, 네! 페트라라는 그런 것에 훈련돼 있다. 그녀는 개를 바라보고 쫓그리고 앉아 환하게 웃는다. 개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 페트라가 작은 막대기를 공원 안쪽으로 깊숙이 던진다. 그라치아는 페트라가 원하는 대로 막대기를 쫓아간다. 페트라가 함께 달린다. 둘은 그렇게 계속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냇물이 소리 내어 흐르고, 자동차 소리는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완전히 잠잠해진다. 마침내 찾아온 고요. 개가 달려들자 오리들이 꺾꺾 운다. 드디어 그라치아가 똥을 싸자 페트라라는 한 시도 지체하지 않고 재킷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똥을 주워 담고 봉지를 능숙하게 묶는다. 페트라라는 참을성이 있다.

“참을성은 우리 여자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어머니는 페트라에게 이런 인생 조언을 주었다. “참을성과 너그러움을 베푸는 능력 말이야.” 그러면서 눈을 찡긍하며 남편을 가리켰다. 그는 손을 허리띠에 찰라 넣은 채 소파에서 무심히 TV를 보고 있었다. 전형적인 TV 시청 자세였다. 페트라라는 가까운 휴지통이 보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몇 분 동안 공원을 돌아다닌다.

모두를 위해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페트라의 어머니는 딸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식을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페트라에게선 귀청을 찢는 웃음소리만 터져 나왔다. 잊어버리세요!

개는 이제 흥미가 없어져서 더는 막대기를 쫓아 달려가지 않는다. 휴식할 시간이다. 벤치에 앉은 페트라라는 옆에 그라치아를 앉힌다. 그리고 기다린다. 더 나은 시절을. 더 좋은 날씨를. 돌아가야 하는 더 그럴 듯한 이유를. 모든 게 시큰둥해지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페트라라는 그라치아를 무릎에 앉힌다. 둘 다 피곤해져서 눈을 감는다.

(13-23쪽)

[...]

티나

여성 보호시설에서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없다는 건 관련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그렇게 오래 이어지리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었다. 티나는 이번엔 양보하지 않았다.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설득당하지 않았고,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발을 했다가 곧 취하했지만, 그로 인해 식구들 간의 역학 관계에 깊은 골을 남겼다. 아이들이 아빠는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오히려 집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애원했다는 사실이 마침내 그녀가 상담소에 예약을 하고 혼인 관계를 비밀리에 해소할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 ‘비밀리에’ 뭘 하는 건 티나의 강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A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외려 그를 바꾸고 싶었고, 그를 용서하고 싶었고, 그를 믿고 싶었다. A는 치료를 받겠다고 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녀에게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A는 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뼈, 더 이상은 안 된다.

여성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것이 휴가가 아니라는 건 그곳에 와봤던 사람들, 또는 비슷한 극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여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라고 믿었다. A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티나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한나절을 잠이나 자며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뷔페에서 배를 채운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관광지나 휴양지의 별 몇 개짜리 호텔에 있을 법한 멋지게 꾸며 놓은 방들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다만 그의 상상 속의 여자들은 모두 무차별로 남자들을 욕하고 서로 어깨를 토닥였다. 그 페미니스트들은 완전히 버릇이 잘못 들 것이고, 그의 아들은 사적인 다툼에서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시설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했다. 불필요하고 불평등한 곳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이미 여러 번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두들겨 팬 건 그도 확실히 지나치다고 여겼으나, 지금 며느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아들을 붙잡고 시간을 끄는 것은 역시나 파렴치하다고 느꼈다.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지!”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호통쳤다. 그의 아내도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A에게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바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건 가능했지만 주변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 여자가 폭력을 쓰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더 달가워하지 않았다. 시설에 남아 있는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당사자들로서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더 간단하고 덜 끔찍해 보였다. 많은 여자들이 이 시설에 두 번 이상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집보다는 이곳에서 잠을 더 잘 잔다는 것도 사실이다.

티나는 더 이상 방에서 질질 끌려 다닐 마음이 없다. 더 이상 벽과 가구에 묻은 자신의 피를 닦아낼 마음이 없다. 아이들이 현실적인 심각성을 모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지 않다. 수년 간 옆에서 함께해준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오늘 티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진실한 대답을 들을 것이다. 이 여자는 오물 속에 누워 있다가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는 깨끗한 이별을 준비하려 한다. 그녀는 깔끔한 머리 모양을 원한다. 바로 그걸 미용사에게 말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 남자가 쉽게 움켜잡을 수 없는 헤어스타일이 필요하다.

모발

여자의 모발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각자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모발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다루면 두피가 자극을 받는다. 모발이 굵든 가늘든, 곱슬이든 직모이든, 염색을 했든 풍성하든, 두피가 건강한 사람은 강한 모근과 아름다운 머릿결에 신경을 쓴다. 머리는 빗으로 빗고, 브러시로 손질하고, 젤을 바르고, 곱슬 파마를 하고, 직모로 펴고, 부풀려 풍성하게 만들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파우더를 바르고, 땅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모양을 낼 수 있다. 어떤 헤어스타일과 컷은 엄격함과 통제력을, 어떤 것은 당당함과 쿨함을 암시한다. 또

어떤 것은 화려함을 드러낸다. 오랜 세월 단정치 못하고 전문가답지 않다고 여겨져 온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차별적인 태도다. 예를 들면 아프로 스타일이나 땅은 머리처럼 소외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그것이다. 머리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싶으면 관리를 받으면 된다. 머리카락이 갈라지거나 비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긴 머리가 몸에 닿아 출렁거리거나 계속 머리를 만지면 끊어진다. 모발도 휴식이 필요하다.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려면 자연 건조시켜야지,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나 그 외의 뜨거운 기구로 손질해서는 안 된다.

티나와 A는 스낵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스낵바는 모퉁이를 돌면 있는데 지역 특유의 요리를 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로 옥외 탁자도 준비되어 있다. 밤나무가 없어서 아이스크림과 청량음료 제조사가 제공하는 파라솔을 펴놓았다. 이 스낵바에 앉아 있으면 남들을 볼 수 있고 남들에게 목격될 수도 있다. 폭행하는 파트너와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점심이면 스낵바는 날마다 손님으로 붐빈다. 저렴하고 맛이 있기 때문이다. 돈을 아껴야 하는 티나에게도 안성맞춤이다.

티나가 모퉁이를 돌아 스낵바에 도착하자 이내 남편의 모습이 보인다. 자책하고 슬퍼하는 것 같다. 입꼬리가 잔뜩 처진 것이 평평 운 모양이다. 티나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치면서 표정이 이완된다. 티나는 심장이 뛰면서 왜 옛날에 이 남자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티나에게 다가와 화려한 꽃다발을 건네고 불에 입을 맞춘다. 꽃다발 속에는 티나가 좋아하는 꽃들도 있다. 티나는 감동했다. 두 사람은 초록 탁자 옆에 있는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의자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겼을까? 티나는 그게 알고 싶다. 그녀는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 제 손에 포갠다. 이거다. 익숙한 몸이 옆에 있다는 느낌, 원래는 아름다운 느낌. 티나는 접촉했던 손을 거두고 메뉴를 읽는다. 지금은 이별의 자리다. 데이트가 아니다. 티나는 새 희망을 믿어보려 하지만, 힘들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방금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158-161쪽)

샤론 도두아 오투 Sharon Dodua Otoo

『아다의 공간』 Adas Raum

2021, S. Fischer Verlag GmbH, Frankfurt am Main

『아다의 공간』에서 저자 샤론 도두아 오투는 수백 년 동안 여러 대륙에서 살았던 각기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엮어 서술한다. 그 여성들의 이름은 모두 아다^{Ada}다. 여러 명의 여성이자 여러 개의 삶을 사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다. 예를 들어 만삭의 아다는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나 여성으로, 현재 베를린에서 이복언니(독일에서 자란) 엘레와 함께 살 집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 그녀와 그녀 이전에 등장한 여성들을 이어주는 황금 팔찌를 발견한다.

아다는 언니 엘레를 따라 스튜디오 형 아파트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광고에 적힌 대로 ‘구조가 한눈에 보이는’ 집이었다. 게다가 독일의 많은 아파트들처럼 기능적이고, 튼튼하고, 깨끗했다. 그러나 뭔가 따스함이 없었다. 그건 제아무리 꽃 색깔이 햇살을 상기시킨다 해도 창턱에 놓여 있는 금잔화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오른쪽에서는 한 남자가 나무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커튼 봉의 나사를 돌리고 있었다. 꼭 끼는 스웨터 속에서 그의 목을 따라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은 머리 뒤에서 느슨하게 묶었다. 청바지가 흘러내린 탓에 팬티가 드러났다. 아다는 탄 곳을 보았다.

몇 달 동안 아무 성과 없이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아다는 30초 내로 중요한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가 텃다. 레인지와 개수대는 뒤쪽 왼편 구석에 있었고, 오른쪽 맞은편에는 하얀 문이 있었다. 욕실 문인 듯했다. 그 외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이삿짐 상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몇 개는 반쯤 비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득 차 있었지만 아직 테이프로 봉하지는 않았다. 엘레는 능숙하게 상자들 사이를 지나 몇 걸음을 걸어 작은 부엌 쪽으로 갔다. 그녀가 레인지를 살펴보는 동안 금발의 남자가 의자에서 내려왔다. 커튼 봉은 여전히 창문 위에 달려 있었다.

"나중에 해야겠어요." 남자가 웃으며 아다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이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쯤 되었을 것 같다. 지쳐 보였다. 초조해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무한대로 많은 사람 같지도 않았다. 남자가 아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아다는 그의 왼쪽 눈썹 위에 난 흉터를 보았다.

"알폰스라고 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다는 남자의 인사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직 숨이 차 헐떡였다. 두 손은 계속 배에 두고 손가락으로 작게 원을 그리며 배를 마사지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리더니 갑자기 다리가 가려운 척했다. 아다는 몇 번 숨을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구아?" 남자가 물었다.

"아-다." 그녀가 말했다. "제 이름은 아다예요."

말이 안 통하는군. 이렇게 생각한 나눈 있지도 않은 눈알을 마음속에서 굴렸다.

"아뇨." 남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구아... 아 그러니까... 워터... 물 마시겠어요?"

남자는 아다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그걸로 마시는 시늉을 했다.

엘레가 남자 옆에 나타나 아다에게 컵을 내밀었다.

"이거 마시면 될 거예요." 엘레가 아다에게 물을 건네며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괜찮다.'는 뜻의 손짓을 했다.

잠시 실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쭈뼛대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다는 물을 다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실내를 훑고 있었다.

"그런데," 아다가 말했다.

엘레가 기침을 했다. 아다는 엘레의 완강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말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알폰스에게 몸을 돌렸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좀..."

그 순간 엘레가 바닥을 가리켰다.

"진짜 나무(Echtes Holz)인가요?"

아다를 보던 알폰스는 어리둥절해져서 엘레를 쳐다보았다. "네?"

"나무냐고요." 엘레가 다시 물었다. "리얼 우드?"

"그럼요." 남자가 끄덕였다. "오크, 참나무예요. 저는 독일어 Eiche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튼튼해요. 단단하고요."

아다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자 엘레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폰스가 웃으며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는 엘레에게 물었지만, 엘레는 못 들은 척하고 몸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갔다. 알폰스는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아다 쪽을 보며 웃었다.

"가나." 아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지금 이 튼튼하고 단단하다는 나무 바닥에 파편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가나!" 금발의 남자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작년에 거기에 갇혔어요!"

아다는 입을 오므려 '오' 하는 표정을 만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부아시에 며칠 있었어요." 남자가 다시 환하게 웃었다. "영화를 제작하거든요."

그는 손가락으로 분주하게 제 스마트폰을 만졌다. 아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부아시라고요?"

알폰스가 웃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에게서 조상이 가나 사람이라는 흔적은 전혀 엿볼 수 없었다. 아다는 그의 주근깨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오부아시를 알아요?" 남자가 물었다.

아다는 다시 물 컵을 입에 대고 훌쩍거렸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갈수록 좋았다.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한다고 했지?" 엘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레인지 옆에 서서 그 옆의 찬장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필요 이상 큰 소리를 내며 찬장 문을 닫았던 것 같다. 알폰스는 아다와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에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그는 몸을 돌려 상자 몇 개를 옆으로 밀면서 엘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다에게는 엘레와 알폰스가 나누는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엘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긴 걸 느꼈을 땐("3000유로라고요?") 오래잖아 이야기가 끝나리라는 걸 알았다. 여태 세입자를 못 찾은 것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아다는 남자가 단 한 푼이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기껏해야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계속 낮은 소리로 협상을 하던 소리가 중단되더니 엘레가 실내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아다, 너 이 찬장 가질래?"

아다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이마를 긁적였다.

"아다?"

"응, 잠시만!"

아다는 반쯤 찬 이삿짐 상자들 옆을 힘들여 지나갔다. 상자들 사이로 빠져 나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급기야 가득 차서 터질 듯한 상자 하나가 아다의 배에 부딪혔다. 아다와 부딪힌 상자가 다른 상자들과 부딪히고 계속 상자들이 쓰러졌다. 많은 책과 팸플릿과 낱장의 종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건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아다는 그 무의미한 베를린 예술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미안합니다, 이런!"

아다는 무릎을 살짝 굽혔으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골반 아래를 지나갔다. 근처에 붙잡을 만한 게 없었다. 나머지 상자들은 너무 불안정했다.

"괜찮아요!" 알폰스가 웃었다.

그는 이미 흐트러진 서류 몇 개를 주워 모은 뒤 아다 옆에 와서 서 있었다. 엘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쌓여 있는 상자 속에 책을 하나씩 차례로 담았다. 아다는 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알폰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커다란 포장 테이프를 허공에 대고 흔들었다.

"이건 내가 할게요!"

아다는 알폰스가 상자를 다시 포장하고 거기에 테이프를 붙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녀가 뭔가를 들어 올리려고 했다면 알폰스와 엘레는 아다와 흩어진 서류 둘 다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아다는 선의 반대는 선의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게 뭐예요?"

엘레가 광택이 나는 팸플릿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알폰스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네?"

"이게 뭐죠?" 엘레가 다시 물었다.

"모르겠어요." 알폰스는 이렇게 말하고 포장 테이프를 옆에 놓았다. "어쩌다 캐나다 사람한테 얻은 거예요." 그는 '어쩌다'라는 말에 힘을 주면서 두 손을 허공에 뻗어 따옴표를 그렸다.

"뭔데?" 아다가 물었다.

"캐나다 사람한테 얻은 거라는데..."

"아니." 아다는 손으로 팸플릿을 가리켰다. "이게 뭐야?"

엘레는 몸을 일으켜 팸플릿을 아다에게 내밀었다. 특별 전시회 카탈로그였다.

"식민 시대 이전의 서아프리카." 아다가 중얼거리는 소리로 제목을 읽었다. 대단히 멋지게 만든 카탈로그였다. 전시품을 찍은 수많은 컬러 사진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짝거렸다.

"...마음에 드세요?"

아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복잡해 보이는 동작으로 물 컵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꿔 쥐고 엘레로부터 팸플릿을 건네받았다.

"재미있어요, 이 왼손이라는 게." 알폰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를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다는 팸플릿을 읽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알폰스가 아다가 왼손을 사용하지 않은 걸 왜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지 엘레에게 신이 나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들렸다. 어떻게 그는 '전통적인 관습'에 대해 곰곰 생각하는 동안 엘레의 눈이 가늘어지는 걸 보지 못한단 말인가?

"가나에도 이젠 화장지가 있어요. 그게 궁금하셨다면 말이죠!" 어느덧 엘레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네...?" 알폰스가 더듬거렸다. "그게 아니고 저는 ..."

"가나 사람들은 용변을 본 후 왼손으로 뒤처리를 한다고 당신이 그랬죠? 저는 가나에도 화장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알폰스의 얼굴이 시뻘게졌다.

"그럼요. 물론이죠. 저는..."

엘레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아다를 바라보았다.

"워 테^{wo te}." 엘레가 말했다. 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가는구나.

*

다시 엘레의 집으로 가려면 지하철 U7번을 타고 그나이제나우 가에서 헤르만 광장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U8번으로 갈아타고 비테나우로 가는 게 가장 빨랐을 것이다. 가장 빠르기는 하지만 재미는 없었다. 가는 내내 지하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넘쳐나기 일쑤였다. 겨울에는 불편하고 여름에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적어도 헤르만 광장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만큼은 여간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 물론 엘레도 아다도 급할 건 없었다. 다음 순서로 보려 했던 집은 엘레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웠는데 막판에 집 구경이 갑작스레 취소되었다.

"에이, 속상해!" 아다가 말했다. "이유가 뭘까?"

"몰라." 엘레가 부루통해서 말했다. "내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

엘레가 지하철 계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롱하자 아다는 그냥 말없이 그녀를 따라가는

게 낮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왜 엉뚱한 승강장에 서 있을 것 같으냐는 물음에 엘레는 씩씩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헤르만 광장에서는 오줌 냄새가 나."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다는 그냥 눈썹만 치켜떴다. 적어도 오줌은 유기물이잖아. 그녀가 엘레 옆에 앉으며 생각했다.

메링담까지의 거리는 짧았다. 가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치 다른 승객들이 엘레와는 어떻게든 몸이 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던 엘비스 모방자까지도 모금을 할 때는 말없이 엘레 옆을 지나쳤다. 엘레는 제 휴대폰을 뚫어저려 들여다보았고, 아다는 남자가 들고 있는 모자 속에 50센트를 던져 넣었다.

지하철 U6에 앉아 가다가 코흐가역에 도착했을 때 아다는 다시 엘레와 이야기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가르쳐준 가(Ga) 말 중에서 정말 뭐 테^{te}밖에 기억이 안 나?" 아다가 물었다.

엘레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아다를 보았다.

"왜? 그 말은 '우리 가자.'라는 뜻이잖아. 안 그래?"

엘레의 목소리가 한층 누그러진 듯했다. 이마는 펴지고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다는 슬쩍 미소를 지어볼 용기까지 났다.

"그래!" 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도 그렇지. 언제 나랑 가(Ga) 말로 얘기할 거야?"

사춘기 청소년들의 토막 난 대화와 둔탁한 역 안내방송 소리에 묻혀 엘레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온몸을 동원해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몸을 가까이 구부려야 했지만, 아다는 엘레가 다시 자신과 말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엘레가 웃었다. "독일어는 순전히 너 때문에 쓰는 거야."

"원래는 아빠 때문이지."

엘레는 어깨를 들썩였다. 아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건 이따금 어둠 속에 나타나는 한 줄기 불빛뿐이었지만,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보다 차라기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가방을 든 여자가 있었다. 아주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구부정한 등으로 노란색 난간에 기대어 열차 안을 둘러보았다. 볼룩한 배낭은 어깨에 늘어져 있고, 내용물이 가득 찬 쇼핑백은 두 팔에 걸려 있었다. 사실 아다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전에 버스에서 캐시 옆에 앉아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당시 아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앉아 있던 곳을 가리켰다. 여자는 처음에 미소를 지으며 벌써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 두 손으로 잡으며 아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러다 여자는 자신이 누구 옆에 앉아야 하는지를 알아챘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는 투였다. 아다는 꿈쩍도 하지 않고 빈 좌석 옆에 그대로 서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서서히 깨달았다. 캐시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의 냉랭한 얼굴 표정은 그 일이 벌어지는 내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다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가(Ga)를 우리의 암호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하철이 멈추었을 때 아다가 말했다.

엘레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다, 넌 독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곳에서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

아다 맞은편에 서 있던 여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엘레를 쏘아보았다.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붉어졌다. 엘레는 그녀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왜 내가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네." 엘레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예외야." 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엘레가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열차가 슈타트미테 역에서 정차하자 유치원 아이들이 올라탔다. 두 명의 아이가 킁킁대며 같은 자리로 돌진하다가 돌이 앉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다른 세 명은 열차가 덜컥거리며 출발하자 두 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아이들이 내지르는 깽 소리 때문에 아다는 귀가 아팠다. 그녀는 전시회 카탈로그를 가방에서 꺼냈다.

"아, 그걸 가져왔어?" 엘레가 놀라며 말했다.

아다는 어깨를 들썩였다.

"그 남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어." 아다가 말했다. "그리고 보여줄 게 있어."

아다는 팸플릿을 뒤적이다가 원하던 페이지를 찾았다. "여기. 보여?"

아다는 엘레에게 몸을 기울이며 카탈로그를 내밀었다. 한 아이가 이상하게 길게 끄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엘레는 영문도 모르고 두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여기." 아다가 가리켰다. "가(Ga) 사람들보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훨씬 먼저 황금해안에 들어온 것 같아!"

"뭐라고?"

엘레는 아다의 손에 있던 팸플릿을 받아들고 읽어나갔다.

"가 사람들은 원래 나이지리아에서 왔네?"

"요즘 우리가 나이지리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왔어..." 아다가 끄덕였다.

엘레는 어리둥절해져서 아다를 바라보았다.

"넌 알고 있었어?"

"아니!"

팸플릿을 읽는 동안 엘레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그런 그녀를 자세히 관찰하는 바람에 아다는 지하철이 벌써 프랑스 가에 도착한 것도 몰랐다. 들뜬 유치원 아이들 여러 명이 벌써 지쳐 보이는 교사들에게 떠밀려 열차에서 내렸다. 문이 다시 닫힌 뒤에야 아다는 엘레를 놀라서 쳐다보던 여자도 눈에 띄지 않게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나." 엘레가 속삭이며 어느 문구를 가리켰다.

"끌려온 남자아이?" 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채 여덟 살도 안 돼 보이는데."

엘레는 궁정 사람들 틈에 있는 겁먹은 아이를 그린 바로크 시대의 그림에 감지를 갖다 뒀다.

"불쌍한 아폰소." 엘레가 중얼거렸다.

"아폰소? 조금 전에 봤던 알폰스 같은 그런 이름?"

"응. 하지만 ㄹ이 없어. 아마 그 당시의 왕 이름을 따서 불렀을 거야."

"그렇지도." 아다가 말했다. "이런 남자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게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엘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엘레가 느리면서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한 탓에

아다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다. 아다는 엘레를 보며 그녀의 눈빛을 관찰했다. 찡그린 이마, 내리깐 눈꺼풀, 뻣뻣한 입술이 모두 아다에겐 익숙한 표정이었다.

"엘레, 왜 그래?"

엘레는 아다를 잠시 흘끗 보다가 금세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지하철 안내방송이 끝나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남자한테 왜 대답했어?"

엘레는 낮고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아다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제?"

"내가 어디에서 왔냐고 그 남자가 물었을 때."

아다의 배가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엘레와의 언쟁이 격렬해지려 했지만 아다는 그럴 기운이 없었다.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아다는 가장 적당한 말을 찾았다.

"아 그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열차는 덜커덩거리며 프리드리히 가까이 달렸다. 아다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이 질문이 내게 얼마나 거지같은지 너는 몰라. 안 그래?"

아다는 속으로 눈을 굴리며 열까지 켜다. 그러는 동안 엘레의 물음에는 더 이상 답할 마음이 없어졌다.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어. 다른 곳에는 가본 적도 없어. 우리 식구들 중에서 언제나 나만 흑인이야. 모두들 내게 말했어. 우리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그게 얼마나 거지같은 기분인 줄 알아?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속는 기분 말이야."

아다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엘레가 너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도록 말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 밖에서 있을 때도,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더라고. 파티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오직 내 인생만이 아주 거지같은 신원 확인이었어..."

신원 확인이라는 말이 새로웠다. 신원 확인. 정말? 아다는 속으로 다시 눈을 굴렸다.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 엘레가 씩씩대며 말했다.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기분은 거지같아. 넌 그래도 아빠가 있었잖아."

이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아다는 배를 문지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해." 마침내 아다가 말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관심?"

엘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가 웃음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다는 엘레의 목소리에 즐거움이라곤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관심들이 없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는? 우리가 무슨 쇼를 좋아하는지에는? 우리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에는? 그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지 알아?"

수사적인 질문이었지만, 아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떤 대답이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사이의 뭔가를

이야기하는 한,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축구야. 아니면 음식이든가. 아니면 휴가지이든가."

아다는 엘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엘레는 몸을 뒤로 기대고 다른 곳을 보았다.

"엘레..."

오라니엔부르크 토어 역까지 가는 내내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말이 없었다. 엘레가 다시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열차 문이 닫혔을 때 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이야.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나는 자주 받아. 나는..." 아다가 손짓을 하며 말했다. ",,,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너한테는 정말 악의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 엘레가 대답했다. "너는 다른 곳에서 자랐으니까."

"맞아." 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거 알아? 이번에는 달랐어. 알폰스는 자기 증조부가 오부아시 출신이라고 했어."

엘레의 눈썹이 순식간에 이마 한가운데로 모였다.

"알폰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엘레가 투덜댔다. "내가 말하는 건 몰래 보는 듯한 시선이야.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엘레로 보아주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알겠어?"

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나에서 아이들은 뒤에서 나를 ‘블로포노!’(백인)라고 불렀어. 기억나? 그런데 독일에서는 나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이게 대체 뭐난 말이야?"

아다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자’에 관한 우스갯소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했다면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엘레는 말없이 계속 카탈로그를 뒤적였다. 특이한 팔찌 사진이 잠시 아다의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건 무슨 진주야?"

그러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던 엘레는 벌써 몇 페이지를 더 넘기고 나서야 아다가 말을 걸었다는 걸 알았다.

"뭐라고?"

"잠시만." 아다는 이렇게 말하고 페이지를 앞쪽으로 넘겼다.

"여기."

아다는 검지로 보석을 가리켰다.

"이게 진주가 서른세 개라고? 숫자가 무슨 상징인 걸까?"

"그런 종교가 많아." 엘레는 어깨를 들썩였다. "무슨 팔찌데 그래?"

"사진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 다산의 진주. 15세기, 서아프리카, 개인 소장."

아다는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고 엘레를 바라보았다. "이런 팔찌가 어떻게 독일 전시회에 오게 됐을까?"

엘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갯짓으로 아다의 질문에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시회 전체를 평가하려는 것 같았다. 아다는 무슨 주석이나 참고문헌이 적혀 있는지 찾으려고 페이지를 다시 뒤로 넘겼다. 없었다. 그녀는 이마를 찡그렸다.

"박물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다가 물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 거야?"

열차가 덜커덩거리며 정차했다. 엘레는 아다에게 팸플릿을 돌려주고 일어났다.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나 보겠지." 엘레가 대답했다.

(207-222쪽)

[...]

두 늙은 여자가 컵에 든 물을 그렇게나 빨리 마실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아다와 엘레는 정말 깜짝 놀랐다. 두 자매는 가득 찬 컵을 사이드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눈동자가 노란 여자가 다시 아다를 응시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2~3주요."

"그럼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왜 집을 함께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아다는 이마를 긁적였다. 그간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이런저런 온갖 정보를 말해달라는 요구는 받았어도 캐시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상했다.

"잘 물어보셨어요." 아다가 말했다.

"아이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아다는 마른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TV에서 세제 광고가 나왔다.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아다가 낮은 소리로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떠났어요. 연락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엘레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말이죠..."

아다가 엘레를 바라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연락은 했었잖아..." 엘레는 지뢰밭에라도 들어가는 사람처럼 말했다. "... 그건 인정해야 해."

"내가 그 사람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10월 중순이야!"

"그래, 비겁한 거지. 하지만 너도 그 사람이 연락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는 잘 알아!"

아다는 오른손 검지로 눈물을 훔쳤다.

늙은 여자가 아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가야," 여자는 이렇게 부른 뒤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

아다가 '옷감 깊숙이 파고드는 세제'와 '눈부신 색깔'이라는 광고 속의 말을 다 듣고, 바닥 양탄자 무늬를 꿈속에서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늙은 여자를 다시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

여자의 목소리는 그녀의 노란 눈동자만큼이나 부드럽고 깊었다. "네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단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 그 남자가 네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를 용서해라."

그 순간 아다는 목구멍으로 한 마디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아다와 캐시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고나 있을까? 아니, 전혀 모른다! 왜 아다가 그를 용서해야 하지?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말하라지!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랫입술이 떨렸지만 아다는 목소리를 진정시켰다.

"그를 용서해라." 여자가 대답했다.

"왜 제가 용서를 하죠?"

"너는 그럴 수 있으니까."

"하, 참!"

아다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아다는 마른침을 삼켰다. 엘레가 아다의 손을 잡았다.

늙은 여자는 아다가 다시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

"아가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들어봐. 그 남자가 네게 한 짓 - 그건 그 남자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그는 윗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한 것뿐이야. 그를 용서해라."

아다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전 그렇게 못해요."

"고통은 내려놓아야 한단다, 아가야. 네가 앞으로 그를 다시 만나든 아니든. 그를 용서해라."

"기니 카 오 쿠루(뭐라고 그랬니)?" 귀가 잘 안 들리는 여자가 물었다.

엘레가 아다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대답했다.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자는 귀에 댔던 손을 내렸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니?" 여자가 아다에게 물었다.

"...제가 누구인지라니요?"

"너는 아단느란다. 네 어머니의 딸이란 뜻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뒤쪽에 있는 TV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클로징 크레딧이 나왔다.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마침내 엘레가 물었다.

"물론이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여자가 대답했다.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여자가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다가 가서 부축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그러나 아다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엘레가 벌써 여자 옆에 가서 섰다.

"괜찮으세요?"

엘레가 팔 아래를 잡자 늙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여자가 웃었다.

그들은 함께 방으로 갔다. TV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여자는 아다와 엘레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권했다.

"보다시피 우리가 집에 아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야."

아다는 나무로 만든 요람, 알록달록한 커튼, 토끼와 곰과 오리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 인형을 바라보았다.

"와우," 아다가 웃으며 아기 이불을 쓰다듬었다. 라벤더 향기가 났다. "너무나 멋진 방이에요! 훌륭해요!"

아다는 털실로 짠 개구리를 집어 들었다. "자제분이 몇 명이세요?"

여자는 몸을 문틀에 기댔다. 아다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아까처럼 환한 웃음은 아니었다.

"아쉽게도 난 자식이 없어. 조카도 없고 남의 자식도 키워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아기를 갖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건 없었어. 하지만 생기지 않았어. 그때 다산의 진주라도 있었다면 좋았을걸!"

"다산의 진주요?"

엘레가 아다를 쳐다보았다. 아다는 가방에 손을 넣었다. 순간 나는 기뻐다. 아다가 드디어 나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다는 팜플릿만 꺼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 말이죠?"

여자는 아다의 손에 들린 팜플릿을 받아서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너무 바짝 들이대는 바람에 종이가 코끝에 닿았다.

"응, 응! 이게 그 전시회로군!"

"네, 맞아요!" 엘레가 끄덕였다. "이것 보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가실 거예요?"

"누구? 나? 아니야! 내 재산을 구경하는데 돈을 왜 내겠어."

"팔찌가 할머니 것이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야. 네 것이자 내 것이야. 그리고 내 여동생 것이고. 어머니들 것이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 것이지."

귀가 잘 안 들리는 여자도 어느새 옆에 와서 팜플릿을 구경했다.

"너희는 이 팔찌가 원래 쿤타나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니?" 여자가 물었다.

"쿤타나시?" 아다가 놀라서 반문했다. "오부아시 지방에 있는 곳이요?"

"기니 카 오 쿠루?"

"오부아시." 아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 맞아." 여자가 대답했다. 그녀는 한 손을 여전히 컷바퀴에 대고 있었다.

"그런데 팔찌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엘레가 물었다.

"애들아,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는 속은 거란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팔을 벌렸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아 있지!"

"하지만 언제까지 더 이래야 하나요?" 엘레가 몸을 떨며 말했다. "우리의 세상이 망가졌어요. 원래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많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정말요?" 엘레가 이마를 찌푸렸다. "차를 운전하고, 고기를 먹고, 아기를 낳고..."

아다가 엘레를 응시하자 엘레가 말을 멈췄다. 손을 아직도 귀에 대고 있는 늙은 여자가 엘레를 쏘아보았다.

"너도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알지?"

"누구, 저요?" 엘레는 맹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 동생의 자식은 네 자식이기도 해."

이 마지막 말이 방안을 맴돌다 사라지는 동안 네 여자는 계속 서 있었다.

"방이 예뻐요." 마침내 아다가 말했다. "정말 예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기에는 너무 좁아요."

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레는 아다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다.

"이젠 다음 집을 보러 가야겠어요." 엘레가 말했다.

"아, 그러지 마라!"

"너무 늦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여자가 아다의 팔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다시 오너라. 방은 언제나 너를 위해 비워둘게."

(253-258쪽)

저자 소개

Autorinnen

요한나 아도르얀^{Johanna Adorján, 1971}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저서로는 『독점적 사랑』^{Eine exklusive Liebe, 2009}, 『나의 500명의 베스트 프렌드』^{Meine 500 besten Freunde, 2013}, 『나뉘어진 즐거움』^{Geteiltes Vergnügen, 2016}, 『남자들』^{Männer, 2019}, 『안녕』^{Ciao, 2021}이 있다.

안토니아 바움^{Antonia Baum, 1984}은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문학 작품으로는 소설 『아무런 생명도 없는, 기껏해야 죽어있는』^{Vollkommen leblos, bestenfalls tot, 2011}과 『폐차장에서 자란 나는 타이어 캡과 범퍼 위에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웠다』^{Ich wuchs auf einem Schrottplatz auf, wo ich lernte, mich von Radkappen und Stoßstangen zu ernähren, 2015}가 있다. 최근 페미니즘 모성 에세이 『젓먹이 생활』^{Stilleben, 2018}을 출간했다.

치아니-소피아 회더^{Ciani-Sophia Hoeder}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쥘트도이체 차이툰 매거진'^{SZ Magazin}의 칼럼니스트이며, 흑인 여성을 위한 독일 최초의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로사맥'^{RosaMag}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다. 회더는 로사맥을 통해 2020년 그림 온라인 어워드^{Grimme Online Award}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2021년 『분노와 악』^{Wut und Böse, 2021}을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마라이케 카이저^{Mareice Kaiser, 1981}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온라인 매거진 '에디션 F'^{Edition F}를 이끄는 편집장이다. 2021년 데뷔작인 『현대 엄마의 고충』^{Das Unwohlsein der modernen Mutter}을 발표했다.

세이다 쿠르트^{Seyda Kurt, 1992}는 저널리스트이자 방송 진행자로, '차이트 온라인'^{Zeit Online}에 기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팟캐스트 제작에 참여했다. 『급진적인 애정. 사랑은 왜 정치적인가』^{Radikale Zärtlichkeit. Warum Liebe politisch, 2021}를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요바나 라이징거^{Jovana Reisinger, 1989}는 작가, 영화감독, 회화 화가로, 2017년 수상 경력에 빛나는 데뷔 소설 『가만히 두다』^{Still halten, 2017}을 발표한 후 2021년 『앞서간 여성들』^{Spitzenreiterinnen, 2021}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보그 온라인'^{Vogue Online}에 칼럼 '피 흘리는 사랑'^{Bleeding Love}을 기고하고 있다.

마르가레테 스토크프스키^{Margarete Stokowski, 1986}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2015년부터 매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에 칼럼 '위 그리고 아래'^{Oben und unten}를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래쪽이 자유로운』^{Untenrum frei, 2016}, 『가부장제의 마지막 날들』^{Die letzten Tage des Patriarchats, 2018} 등이 있다.

샤론 도두아 오투^{Sharon Dodua Otoo, 1972}는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정치 활동가이다. 에디션 어셈블리지 출판사에서 출판된 영어 도서 시리즈 영어 도서 시리즈 『목격자』^{Witnessed}의 발행인이며, 『그뢰트루프 씨는 여기에 앉습니다』^{Herr Gröttrup setzt sich hin}로 2016년 잉게보르크 바흐만 상을 수상했다. 독일 흑인 이니셔티브와 피닉스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는 데뷔 소설 『아다의 공간』^{Adas Raum, 2021}을 발표했다.

